



중국 시진핑(習近平)주석이 지난 7월 4일 모교 관악캠퍼스 글로벌공학교육센터에서 특강을 했다.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에서 대중 강연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기사 18면>

“일본 야만침략 때 韓·中 생사 걸고 서로 도왔다”

중국 시진핑 주석, 역사상 처음으로 모교서 특강



모교 26대 총장에
成樂寅교수 선출

<관련기사 18면>



역사연구기록관 MOU체결

지난 6월 11일 본회 徐廷和회장 (左)이 모교 吳然天총장과 1백억원 규모의 '역사연구기록관' 건립 협약을 체결했다. <관련기사 3면>



모교 평창캠퍼스 문열어

좌로부터 沈在國평창군수, 李錫來 前평창군수, 李光宰 前강원도지사, 崔文洵강원도지사, 吳然天총장, 鄭潤煥부회장, 廉東烈국회의원, 鄭根植평의원회 의장, 洪承緒셀트리온 사장 <관련기사 18면>

관악출추

신록의 계절 6월에 모교와 관련한 의미 있는 두 행사가 연이어 열렸다. 11일에는 관악캠퍼스 총장 공관에서 '서울대학교 역사연구기록관' 건립 협약식이 있었고, 바로 그 다음날 12일에는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신리에서 평창캠퍼스 준공식이 열렸다. 前者는 모교의 역사를 기반으로 서울대 정신을 계승시켜보고자 역사연구기념관 건립기금 1백억원 지원을 총동창회가 약속한 행사였고, 後者는 '동북아 그린바이오 허브'를 목표로 모교와 강원도 간에 체결된 MOU가 10년 만에 결실을 맺은 뜻깊은 자리였다.

역사연구기념관 건립 협약식에서 총동창회 徐廷和회장은 “모교의 과거 자료는 물론 교수 논문, 총장 연설문, 동

문과 재학생들의 기록 등을 전시해서 동문들에게 자긍심과 소명의식을 심어주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모교 역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비해 평창캠퍼스 준공식에서 모교 吳然天총장은 “앞으로 평창캠퍼스에 동북아를 대표하는 그린바이오 분야의 최첨단 클러스터를 구축해 국가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창조적 가치를 창출할

溫故而知新

것”이라며 모교 미래상을 제시했다.

언뜻 보기에는 두 행사가 지닌 의미와 방향성, 그리고 총동창회장과 총장의 인사말 요지가 과거와 미래로 서로 엇갈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야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溫故而知新’이 아닌가?

孔子는 論語에서 “옛것을 알고 새것을 알면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다(溫故而知新 可以爲師矣)”라고 말했다. 즉 전통적인 옛것이나 새로운 것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말고 고루 알아야 한다는 점을 설파했던 것이다. 일찍이 물리학에서 입증된 구심력과 원심력의 이치처럼 너무 옛것에만 치우치면 동력을 잃어 쇠락하게 되고, 너무 새로운 것에만 매달리면 끝내는 중심을 잃고 탈선하게 된다는 것이다.

서울대총동창회는 이런 맥락에서 모교의 뿌리 찾기에 나서 1895년을 開學의 시점으로 잡고 개교 1백20년 역사연구기념관 건립에 나선 것이고, 이를 토대로 모교는 현재의 위상에 안주하지 않고 평창캠퍼스 준공을 비롯한 미래지향적 자세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溫故而知新’이라는 시대정신을 모교와 동창회가 힘을 합쳐 하나하나 실현해 나간다면, 모교 법인화를 계기로 2025년까지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진입하겠다는 목표는 그리 어렵지 않게 달성될 것이다. <金仁圭 한국전쟁기념재단 이사장·본보 논설위원>

노리나무광장

1983년 말 모교 경영대학원 MBA과정 시험을 봤다. 당연히 떨어졌다. 이듬해 신촌골로 타거를 바꿨다. 내 이력한 귀퉁이엔 ‘신촌골 MBA’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다.

5월 초 신촌골로부터 메일 하나가 날아왔다. “5월의 별헤는 밤”에 동문님을 초대합니다.” 이걸 뭐가? 신촌골이 자기네 출신 가수들 재능기부시켜서 모금(fundraising)하는 행사다. 대학이 주최하고 동문회가 후원하는 행사. 입장료가 없는 대신 기부금을 내야 한다. 연말정산 처리된다. VIP석 20만원, R석 10만원, S석 7만원, 일반석 5만원.

공연은 제대로 봐야겠기에 40만원 ‘기부’했다. 집사람과 동행한 ‘5월의 마지막 밤’은 싱그러웠다. 노천극장 8천석이 거의 찬 가운데 KBS 엄지인 아나운서 사회로 진행된 공연은 자못 흥겨웠다. 출연자 중 중퇴자인 尹炯柱, 李章熙는 자기 순서를 마친 후 학교로부터 명예졸업장을 받았고, 행사 기획자인 의생명과학과 趙鎭元교수(趙完圭 前모교 총장의 큰 자제)는 자작곡 ‘鳶’(1979년 ‘젊은이 가요제’ 우수상 수상)를 부르기도 했다.

2부에서도 신촌골 출신들이 나와 이런저런 노래를 불렀

다. 출연자 중에 신촌골 병원에서 태어났다는 인연으로 나왔다. 알리(ALI)도 있었다. 아무튼 그러구려 밤 11시다 돼 신촌골 고가 부르는 것으로 행사는 끝났다. 주최 측에 문의한 결과 그날 모금액, 勿驚 5억원.

사실 이런 공연은 관악골이 훨씬 경쟁력 있다. 우선 연예인 스펙트럼이 꽤나 넓다. 성악부터 가요, 국악에 무용, 심지어 광대까지 가능하다. MC 고르려면 하도 널려 있어 골치끼나 아플 게다. 연령대도 다양하다. ‘진고개 신사’ 崔喜準(행정54-59)으로부터 미스 유니버스 4위 李하늬(국악02-06)에 이르기까지. ‘가요반세기’에 기획사 서른 개쯤 차리고도 남을 포텐셜이다.

우린 왜 못하나!

尹在錫
(화학교육71-75)
방송인
본보 논설위원



명색 세계 10위권 대학을 목표한다는 모교에 2% 부족한 게 있다. 오페라나 뮤지컬을 공연할 세계 수준의 오디토리엄이 없다. 교수강의 원격 수강(SNUx나 edX가 아닌)과 구성원의 정서 함양 및 소통을 위한 방송국도 없다. 이런 시설을 세우려면 당연히 큰돈이 필요하다.

이날 신촌골 大訓長은 막간, 무대에 올라와 “개교 1백 30주년을 앞두고 백양로를 파서 밑에 각종 공간을 마련하고, 위를 공원화하는 ‘백양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다음 발언이 나를 화나게 했다. 대훈장 알 “내년 개교 기념일(5월 9일)까지 1천억원을 목표로 모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이미 5백억원을 초과했다”며 싱글벙글.

대한민국 대표대학! 10년 안에 세계 10위권 대학 진입! 말은 누가 못 하나. 문제는 애들 가르칠 생각 않고 정치권에 목매는 풀리페서, 즉 염불보다 잣밥 탐내는 무능한 교수가 문제. 동문들의 고질적인 ‘모래알 근성’ 또한 오십보 백보다.

남은 2년 남짓에 1천억을 모은다는데, 우리는 장학발딩 하나 재건립하느라 4백억 모으는 데 꼬박 5년이 걸렸다. 남이 알까 두렵다. 모교나 총동창회나 정신 차리자. 관악골 4년 다닌 거 무슨 벼슬이라고 평생 우려먹으면서 돈 좀 내라면 편청. 제발 그러지 말자!

관악시단

세월은 가도

洪承昊(불문57-63)
前주자이르 대사·시인

세월은 가도 가지 않는다
가지 않는다
그들은 갔어도 간 것이 아니다
간 것이 아니다
우리의 곁에 남는다
그리움으로 남는다
푸른 물은 머금고 울부짖고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귀를 울린다 울린다
잠에서 깨라고 종을 울린다
울린다 경종을 울린다
슬픔을 안고 기다리지만
그들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는다 꿈속에 남는다
가슴속에 남는다
그들은 갔어도 간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남는다 꿈으로 남는다
그리움으로 남는다
경종으로 남는다

동문칼럼

세계수학자대회(ICM)는 아테네 올림픽 다음 해인 1897년 취리히에서 처음 개최됐다. 수학에서의 글로벌 교류는 근대 올림픽의 역사와 거의 일치하고, 사고의 교환을 통한 난제 해결이라는 전통이 가장 일찍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ICM은 이제는 1백20여 국의 수학자 5천명이 모이는 대규모로 4년마다 개최되는데, 수학 분야 최고의 상인 필즈상이 개막식에서 수여된다.

토마스 쿤이 주장한 과학혁명의 방식을 수학에 적용한다면, 난제는 기존 틀의 허점을 드러내며 새로운 사고와 진보를 이끌어내는 화두가 된다. 난제의 해결 여부보다 그 과정에서 사고의 틀이 바뀌고 확장된다는 게 중요하다. 수학적 난제는 다자간 사고의 교환을 통한 집중적인 해결 노력을 야기하며 사고의 파격적 확장, 즉 새 패러다임을 이끈다. 그래서 수학에서는 학자들의 ‘모이는’ 행위가 타 분야에서보다 많다. 학술회의나 세미나의 절대수가 많고, ‘모이는 것’만 전담하는 세계적인 수학연구소도 여럿 있다. 이러한 난제 해결 노력의 정점에 있는 세계수학자대회는 현재의 틀로는 해결이 요원해 보이



朴炯柱
(물리82-86)
포항공대 수학과 교수
서울세계수학자대회 조직위원장

이다. 서울 ICM은 수학의 대중화를 여는 큰 사건이기도 하다. 대회를 전후해서 이뤄질 각종 수학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학을 즐기는 문화적 토양이 공고해지고, 우수 인재가 수학 분야로 진출하는 경우도 늘어날 것이다. 1백17년 역사의 ICM에서 한국인 기조 강연자는 이번이 처음 출현한다. 우리 수학 수준을 전 세계에 보이는 계기일뿐더러, ICM 기조 강연자는 국제 수학계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가 많아지므로 우리나라의 유망한 젊은 수학자들을 지원하고 국제적으로 노출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범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어려움을 탈출한 우리나라가 이제는 더 늦은 출발을 한 국가들에 되돌려 주고자 준비하고 있다. 개도국 수학자 1천명의 서울 ICM 초청이라는 전무후무한 프로그램을 각계의 후원을 받아 준비 중인데, 그래서 서울 대회의 모토는 ‘늦게 출발한 이들의 꿈 그리고 희망’이다. 세계 수학의 흐름이 선진국 중심에서 신흥국가의 역할이 증대되는 형식으로 바뀌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 ICM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는 무엇이 있을까? 스포츠 정책에서는 金妍兒나 朴智星을 길러내는 엘리트 스포츠 정책도 필요하고, 동네 축구를 지원하는 대중 스포츠 정책도 필요하다. 金妍兒의

서울 세계수학자대회를 앞두고

는 난제를 정리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가를 분명히 하는 노력을 이끌어왔다.

올 8월에 서울 ICM이 열린다. 지난 7년간 준비해온 이 대회에서 최고의 수학자들과 맞닥트리며 눈높이를 설정하게 될 우리 젊은 수학자들은, 겉없이 국제 수학계의 스타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성취의 기준 자체가 다른 것이다. 그래서 우리 수학의 수준은 한 단계 넘어갈 것이며, 필즈상은 그 결과로 당연히 출현할 부산물이지 목표는 아닐 것

탄생이 동네 스케이트장의 불을 만들어냈고 그로 인해 제2의 金妍兒 탄생이 기대되듯이 두 정책은 서로 연관된 것이기도 하다. 수학에서도, 재능 있는 영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수학이 문화의 한 부분이 되도록 지원하는 대중화 정책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영재 발굴 및 지원은 입시과열이나 사교육 문제 같은 복잡한 이슈와 관련이 있어서 크게 위축돼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내며 한국수학이 도약하기를 고대한다.

서울大同窓會報 참여·협력·영광

발행인 徐廷和
편집인 孫一根
인쇄인 孔大植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416호
(장학빌딩 주소: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 7)
•전화 (02)702-2233 팩스 (02)886-2218
•e-메일 snua1969@naver.com

논설위원 金哲洙, 金鎭銅, 宋丙洛, 李炯均, 安炳燦, 丘月煥, 金好俊, 宋鎭赫, 李五峰, 洪性萬, 安國正, 李成俊, 李慶衡, 李元龍, 文昌克, 姜天錫, 高永才, 金仁圭, 徐玉植, 李元燮, 裴仁俊, 嚴基永, 朴時龍, 辛京珉, 尹在錫, 李東植, 鄭世溶, 朴聖姬, 曹炳喆, 許英燮, 鄭興寶, 金亨珉, 李東官, 金仇日, 李啓聖, 金鎭國, 吳在錫, 崔英勳, 李容式, 許承虎, 金昌均, 李先敏, 全榮基, 姜孝祥, 李相起, 金光德, 鄭聖姬, 鄭在權, 申然琇, 姜京希, 權石泉, 鄭然旭, 蔡耕玉, 許文明, 申藝莉, 金伶姬, 金希媛, 洪智英, 李佳穎
편집장 安興燮 편집부 기자 金南柱, 林香默, 邊廷洙, 朴秀埭



본회는 지난 6월 11일 모교와 1백억원 규모의 역사연구기록관 건립 협약을 체결했다. 좌로부터 洪性大부회장, 李俊植연구부총장, 徐廷和회장, 吳然天총장, 孫一根상임부회장, 孔大植부회장

‘역사연구기록관’ 건립에 1백억원 지원

“서울대 정신이 깃든 공간으로 조성”

본회(회장 徐廷和)와 모교(총장 吳然天)는 지난 6월 11일 모교 관악캠퍼스 총장 공관에서 ‘서울대학교 역사연구기록관’ 건립 협약식을 가졌다.

이는 본회가 모교의 역사를 알리고 기념하기 위한 역사연구기록관 건립에 뜻을 함께하고 건립기금 1백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화그룹 金升淵회장의 지원을 받아 徐廷和회장이 50억원, 재단법인 관악회에서 50억원을 출연해 총 1백억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협약식에는 본회 徐廷和회장을 비롯한 孫一根상임부회장, 孔大植·金讚淑·洪性大부회장, 李相赫 감사가 참석했다.

또 모교 吳然天총장을 비롯한 李俊植연구부총장, 成老鉉연구처장, 南益鉉기획처장, 李元雨법대

학장, 崔錫天시설관리국장과 발전기금 金炯周상임이사, 安芝賢기금본부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安芝賢기금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개회사를 시작으로 金炯周상임이사의 徐廷和회장 소개, 徐廷和회장과 吳然天총장의 인사말에 이어 협약서 서명, 감사패 및 기념품 증정,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

徐廷和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역사연구기록관은 모교의 과거 자료는 물론 교수 논문, 총장 연설문, 동문과 재학생의 기록 등을 전시함으로써 대학의 역사, 대학이 국가에 공헌한 내용, 앞으로 서울대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 다양한 정보를 담아 동문들에게 자긍심과 소명 의식을 심어주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재학생, 교수, 35만 동문은 물론 서울대의 정신을 배우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이 언제든지 방문해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吳然天총장은 감사패 낭독을 통해 “모교는 전 동문의 사표로 존경받는 회장님께서 헌정해주신 ‘서울대학교 역사연구기록관’을 대학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시대사적 공간으로 만들으로써 서울대인의 뚜렷한 국가관과 미래를 선도할 시대 정신을 익히는 기념비적 명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吳총장이 徐廷和회장에게 역사연구기록관 건립기금 지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徐회장의 고향인 경남 충무시 문화동의 1870년대 고지도를 증정했다.



지난 6월 28일 미국 버지니아주 웨스턴 타이슨스코너호텔에서 열린 미주동창회 평의원 회의에 참석한 동문이 기념촬영을 했다.

제23차 미주동창회 평의원회

동창회보·홈페이지 개선방안 논의

미주동창회(회장 吳仁煥)는 지난 6월 27~29일 미국 버지니아주 폴스 처치에 위치한 웨스턴 타이슨스코너호텔에서 평의원을 포함한 1백여 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3차 평의원 회의를 개최했다.

미주동창회는 뉴욕, LA, 시카고, 워싱턴DC 등 규모가 큰 지부 동창회에서 2년씩 돌아가며 미주 지역 본부 역할을 한다. 내년부터 2년간 필라델피아지부동창회에서 평의원회 개최 및 회보 발행을 담당한다.

행사 첫날인 6월 27일에 열린 전야제에는 각테일 파티와 만찬 외에 동창회 장기자랑 코너를 신설해 동문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으며, 독자적 행사로 진행됐던 브레인 네트워크 심포지엄을 이번 행사에 포함해 진행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심포지엄에서 워싱턴대 河龍出(외교67-

71)교수와 金政湜(농생물85-89)사업국장의 사회로 ‘한국의 역사와 전통’, ‘생명과학 분야’ 주제에 따른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어 각 지부동창회장들은 吳仁煥(전문기상63-67)회장의 주재로 소속 동창회의 현황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6월 28일 열린 제23차 평의원 회의는 동창회보와 홈페이지 개선 보고 등 각종 사업보고와 동창회 현안 해결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홈페이지 운영의 총책임을 맡게 된 뉴욕지부동창회 金元泳(응용미술81-88)총무국장 겸 IT위원장이 새로 개발 중인 시스템을 영상으로 보고해 큰 관심을 받았다.

또 젊은 세대의 적극적 동참을 위해 마련한 관악세대와의 대화 시간에는 남가주지부동창회 관악연대를 대표해 車奇玟(제이계측85-89)동문이 참석해 관악연대의 설립 목적 및 배경, 활동 상황 등을 소개했다.

이어진 환영사에서 吳仁煥회장은 “제12대 회장단이 출범하면서 8대 주요 프로젝트 사업을 시작해 지난 1년간 많은 기초를 닦고 있다”며 “이 사업은 북미주에서 모교가 웅비하는 데 필수불가결의 사업으로 평의원 여러분과 지역 동창회 동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본회 徐廷和회장은 영상메시지를 통한 격려사에서 “미주동창회에서 차세대 지도자 발굴 및 육성에 앞장서 미주 한인들이 미국 주류 사회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총동창회 역시 모교를 세계 10위권 명문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 모교에서 주력하는 각종 사안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1백억원을 지원해 역사연구기록관을 건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23차 평의원 회의는 지난 6월 29일 메릴랜드주 피비 다이 골프클럽에서 열린 골프대회를 끝으로 일정을 마쳤다. 한편 본회는 미주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격려금 5천 달러를 전달했다. (香)

동산대회서 친목 다져

여수지부동창회

여수지부동창회(회장 金肅秀)는 지난 6월 21일 여수시 화양면 비봉산에서 상반기 동문 등반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동문들은 해발 3백11m의 비봉산을 등반한 후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함께하며 친목을 다졌다.

재학생에 장학금 전달

춘천지부동창회

춘천지부동창회(회장 林正根)는 최근 춘천시내 중식당 회영루에서 2014학년도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林正根(의학70-76)회장을 비롯해 朴升漢(지리교육53-57)고문, 安宰濤(사법87-92)이사, 李柱弘(외교88-93)사무국장 등 동문 10여 명이 참석했다.

장학금 수여식에서 林正根회장이 허남주(중문12입)양, 손승범(생명과학13입), 고진수(의학14입)군 등 재학생 3명에게 각각 1백만원을 전달했다. (秀)



孔大植·金英豪·鄭世煜·孫一根동문, 孫載沃동문 부부·徐廷和·閔庚甲·金一燮·金永珅·姜大鉉동문

신임 부회장단 간담회

“멘토링 사업·기록관 건립에 총력”

본회(회장 徐廷和)는 지난 6월 10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 4층 오크룸에서 신임 부회장과 미주동창회 孫載沃차기 회장을 초청해 상견례 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徐廷和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閔庚甲·孔大植·鄭世煜·金永珅·金一燮·姜大鉉·金英豪부회장과 미주 동창회 孫載沃차기 회장 부부가 참석했다.

徐廷和회장은 신임 부회장 한 명 한 명을 직접 소개하며 총동

창회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역사연구기록관 건립과 멘토링 프로그램 사업, 모교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등에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했다.

徐회장은 인사말 후 孫載沃동문에게 모교 로고가 찍힌 보석함을 고국 방문 기념품으로 선물했다.

孫載沃동문은 “지금까지 평의원회의를 뉴욕, LA, 시카고, 워싱턴DC 등 대도시 지부만 돌아가며 개최했는데 내년에 처음으로 제가 있는 필라델피아에서 회의

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 회의가 성공적으로 치러지면 휴스턴, 달라스지부 등에서도 행사를 개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본회 부회장 추가 선임



李大淳부회장



徐辰源부회장

본회는 최근 제25대 부회장에 李大淳(법학53-57)한국대학법인협의회 회장, 徐辰源(AFP 5기)신한은행장 등 2명을 추가로 선임했다.

모교 역사 자료 수집에 동문 1백25명 기증



본회와 모교 기록관이 진행하고 있는 모교 역사연구기록관 건립 자료 수집에 지난 6월 1~30일 6명의 동문과 교직원들이 추가로 접수했다.

이로써 지난 5월 31일 이전에 기증한 동문 1백19명(본보 421호 8면, 422호 4면, 423호·424호·425호 6면, 426호 8면, 427호 7면, 428호 8면, 429호 4면, 430호 6면, 431호 3면, 432호 7면, 433호 8면, 434호 9면, 435면 6면 게재)을 통합해 현재까지 총 1백25명의 동문이 소중한 자료를 보내왔다. 추가 기증자와 접수품은 다음과 같다.

▲張世憲(화학공학41-46)동문 : 교수 조무원 인사발령통지서 및 봉투(1946년) ▲申星雨(의학47-53)동문 : 강의 자료 등 ▲姜忠元(전기공학59-65)동문 : 대학 교재 및 수업 노트 등 ▲羅吉雄(경제61-65)동문 : 상과대학 버클(1965년) ▲金榮範(사회74-81)동문 : 문리과대학 문집 형성 4권

▲경영대학 崔海永행정실장 : 사범대학 수료증서(1947년) 및 졸업증서(1951년), 경성여자사범학교 배지 등 (사진)

서울대학교 역사 자료를 찾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대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서울대총동창회(회장 서정화)와 서울대(총장 오연천)는 2015년에 맞을 개학 120주년을 계기로 모교의 유구한 역사와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서울대 120년사’ 편찬과 ‘서울대 역사연구기록관’ 건립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록물을 수집하고자 하오니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동문과 가족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집 대상 : 서울대학교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기록물

- 1)문서류 : 행정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류, 수업 관련 강의노트 및 과제물, 자치단체 회의록 등
- 2)시청각물류 : 교내 교정 및 학내 행사 사진·영상자료, 각종 슬라이드, 강의 오디오 및 비디오 자료 등
- 3)간행물류 : 팸플릿, 리플릿, 소식지, 요람, 편람, 졸업앨범 등
- 4)박물류 : 교표, 교기, 배지, 교복, 감사패, 현판, 액자, 직인, 기념품, 상장, 임명장, 개인애장품, 성적표 등
- 5)기타 대학 역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원품, 모사품, 앨범 포함)

2. 수집 기간 : 2014년 12월 31일까지 (마감기일 연기)

3. 수집 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4. 문의처 :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전 화 : 02-702-2233 팩스 : 02-703-0755 E-mail : webmaster@snu.ac.kr

주 소 : (151-74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본관 416호

담당자 : 임성용 과장 핸드폰 : 010-9238-9759

서울대학교 기록관

전 화 : 02-880-8819 팩스 : 02-884-7149 E-mail : archives@snu.ac.kr

주 소 : (151-74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기록관 220동 446호

담당자 : 김봉은 전문위원 핸드폰 : 010-3032-5913

5. 제공자 혜택 : 역사연구기록관에 제공자 성명을 표시하는 등 혜택 제공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서정화·서울대학교 총장 오연천



‘6·25와 서울대’ 주제로 포럼

대학원동창회

대학원동창회(회장 崔鍾庫)는 지난 6월 20일 모교 관악캠퍼스 법대역사전시실에서 ‘6·25와 서울대’를 주제로 제9회 대학사 포럼을 개최했다.

6·25전쟁 64주년을 즈음해 마련된 이번 포럼에서 崔鍾庫회장은 “6·25라는 민족적 변란을 모교는 어떻게 체험하고 극복했으며 지금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챙겨야 할지 물어봐야 한다”며 이번 포럼의 의미를 전했다.

이날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6·25전쟁에서 전사한 모교 학생은 공대 10명, 농대 2명, 문리대 3명, 법대 3명, 사대 4명, 상대 2명, 수의대·의대·치대 각 1명씩

총 27명을 비롯해 확인이 어려운 참전자 19명 등 모두 46명으로 나타났다.

모교 기록관에는 6·25 참전과 관련한 사진, 문서, 학생등록증, 학도호국대 수첩 등 1백13점의 원본 및 스캔본을 보관하고 있다.

6·25와 모교 관련 출판물로는 ‘서울대학교 40·50·60년사’ 중 ‘전란 속의 서울대학교’, ‘역사 앞에서(金聖七 著, 창작과 비평사, 1993)’, ‘6·25와 나(법대 58학번 동기회, 2011)’, ‘한국전쟁의 실상과 학도병 이야기(朴陽豪 著, 화남, 2009)’ 등이 있다.

한편 동창회는 최근 ‘서울대 학문의 기초와 계승’, ‘마로니에의 추억을 찾아서’를 특집으로한 95페이지 분량의 회보를 발간했다.

법조 동문 환영회 열어

대전·충남지부동창회

대전·충남지부동창회(회장 吳應準)는 지난 6월 17일 대전시 둔산동 한정식당 예술마당에서 2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법조 동문 환영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朴洪佑(법학72-76)대전고등법원장, 趙仁鎬(법학77-81)대전지방법원장, 대전고등법원 呂美淑(사법84-88)·李源範(사법84-88)·鄭善在(공법84-88)부장관사, 대전지방법원 許容



碩(사법83-87)수석부장관사 등 새로 부임한 동문에게 축하패를 전달했다.



모교서 동문친선 등산대회 개최

사대동창회

사범대학동창회(회장 李揆澤)는 지난 6월 14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 앞 잔디밭에서 동문 친선 등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李揆澤회장, 卞

柱仙전임 회장, 모교 사범대학 全泰源학장을 비롯해 1백여 명의 동문이 참가해 화창한 날씨 속에 관악산을 등반 후 교수회관 앞 잔디밭에서 친교를 나눴다.

이날 행사를 위해 李揆澤회장이 보온병과 화장품세트를 기념품으로 헌정했다. (南)



최고 골퍼에 李吉女·李東鎬동문

의대동창회

의과대학동창회(회장 朴容炫)는 지난 6월 15일 경기도 이천시 뉴스프링빌CC에서 1백여 명의 동문이 참가한 가운데 제12회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희의료원 李東鎬(의학 73-79)진단방사선과장은 71타를 치며 골프 선수 못지않은 기량을 뽐냈다. 가천대 李吉女(의학51-57)총장은 지난해 여성부 우승에 이어 이날 90타를 기록하며 의대

최고 여성 골퍼로 자리매김했다. 시니어부에선 모교 安允玉(의학 66-72) 명예교수가 81타를 치며 노익장을 과시했다.

대회를 위해 朴容炫회장을 비롯해 동아제약 姜信浩회장, 李吉女총장, 교보생명 愼昌幸회장 등이 기념품을 협찬했다.

신페리오 방식이 적용된 이날 경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니어부 : 메달리스트 安允玉 동문, 우승 成相哲(의학67-73) 동문, 준우승 姜熙雄(의학62-68) 동문, 3위 全炳斗(의학62-

68) 동문, 장타상 金鍾和(의학63-69) 동문, 근접상 金顯宇(의학64-70) 동문

▲일반부 : 메달리스트 李東鎬 동문, 우승 林明寬(의학81-87) 동문, 준우승 張重桓(의학69-76) 동문, 3위 洪鎭杓(의학82-88) 동문, 장타상 李昌燮(의학84-90) 동문, 근접상 金相泰(의학83-89) 동문

▲여성부 : 메달리스트 李吉女 동문, 우승 李相旻(의학81-87) 동문, 준우승 朴善玉(의학80졸) 동문, 3위 宋賢眞(의학81-87) 동문, 장타상 尹寶玲(의학81-87) 동문, 근접상 童恩實(의학81-87) 동문

골프 단체전 32회 동기회 우승

약대동창회

약학대학동창회(회장 李慶秀)는 지난 5월 30일 경기도 용인 88CC에서 제2회 동창회장배 동문 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李慶秀회장, 鄭之碩 명예회장, 약학대학 李奉振학장 등 90여 명의 동문이 참가해 골프를 즐기며 친목을 도모했다.

경기 후 만찬장에서 李慶秀회장은 “화창한 날씨 속에서 푸른 잔디를 걸으며 선후배 동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을 것으로 본다”며 “이번 대회를 비롯해 동창회의 많

은 행사에 적극 참여해 선후배 우의가 더욱 돈독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경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좌로부터 李慶秀회장, 32회 동기회 李炯圭·李圭憲·白英姬 동문

▲단체전 : 우승 32회 동기회(李炯圭·李圭憲·柳昌夏 동문), 준우승 28회 동기회(崔圭八·盧台鎬·南承國 동문), 3위 38회 동기회(金義英·李秉勳·曹永寅 동문), 최다 참가 23회·34회 동기회

▲개인전 : 우승 金永吉(약학56-60) 동문, 메달리스트 李炯圭(약학74-78) 동문, 준우승 延濟德(제약84-88) 동문, 3위 安承鎬(제약67-71) 동문, 통기스트 金基源(약학59-65)·具滋英(제약86-90) 동문, 니어리스트 金巨林(약학62-66)·李媛玉(제약76-80) 동문 <南>

35회 동기회 주관 ‘동문의 날’ 성황

건축학과동창회

건축학과동창회(회장 李星觀)는 지난 5월 31일 모교 관악캠퍼스 학군단운동장에서 제28회 ‘동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35회 동기회(대표 金義洙)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동문 가족 2백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오후 3시 운동장에 집결한 동문들은 훌수기수와 짝수기수 두 편으로 나눠 소프트볼, 축구, 족구 등 구기와 바둑, 장기 등 두뇌스

포츠를 즐기며 우의를 다졌다. 경기 후 교수회관으로 자리를 옮긴 동문들은 만찬과 함께 경품추첨 이벤트를 즐기며 모교에서의 짧은 하루를 마감했다.

이날 종목별 MVP는 축구 李鉉秀(건축76-83)·白 鎭(건축88-92) 동문, 소프트볼 朴將範(건축93-97) 동문, 장기 李源福(건축76-80) 동문, 바둑 金泰元(건축68-72) 동문이 차지했다. 또 최다 참가 기수상은 11명이 참석한 26회 동기회에 돌아갔으며, 柳昇賢(건축95-99) 동문은 최다참석 가족상을 받았다.

동문 작품

지상 전시회

尹玉鎭 作



즐거움, 한지에 석채, 72.7×60.6cm, 2013년

<작가약력>

- ▲1968년 모교 조소과 졸업
- ▲1985년 이화여대 대학원 회화과 졸업(한국화 전공)

- ▲개인전 3회(1·3회 서울, 2회 독일 뮌헨)
- ▲국내외 초대전 및 단체전 50여 회
- ▲前대구공업전문대·배재대·충남대 강사
- ▲現한국미협·훈올회·숙란회 회원

대표이사 박수경 [84入 소비자학과]

당신에게 당신이 필요하다

당신을 위한 두오

15개 -8333

1995 19년 역사와 규모, 매출 1위 (2013년 매출액 기준)

성혼커플수 29,170명 (2014년 6월 23일 기준)

*두오는 업계 유일의 외환법 대상법인(총 자산 100억 이상 기업만 해당)으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매출액 포함 모든 재정상황을 공개하는 투명하고 정직한 기업입니다.
*성혼커플수는 두오에 가입한 남녀회원 간의 누적 성혼수입니다(1995.2.14~2014.6.23)



白賢旭회장 추대...신입회원 환영

합춘여자의사회

합춘여자의사회(회장 李信爰)는 지난 5월 14일 모교 연건캠퍼스 의생명연구원 가든뷰에서 5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제42회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환영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임원 개선을 통해 분당제생병원 소화기내과 白賢旭(의학74-80)교수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또 부회장에 金那英(의학80-86)동문, 총괄총무에 金美那(의학83-89)동문, 학내총무에 朴敏善(의학83-89)·崔志銀(의학84-90)동문, 학외총무에 曹美卿(의학80-86)동문을 선임했다.

올해 신입회원으로 강지희(의

학08-14)동문 등 53명이 임회했으며, 한수정·장한나·이지수 재학생에게 4백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신입 회원에게는 USB(32GB)를 선물했다.

합춘여자의사회는 회원 1천4백여 명을 두고 있으며, 올해 11월 1일 모교 병원 어린이병원 임상제1강의실에서 ‘성 차이(Gender difference)’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 계획이다.

朴星洙동문 포럼 특강 동송클럽

문리대 65학번 모임인 동송클럽(회장 李充陽)은 지난 6월 13일 서울 삼성동 현죽빌딩에서 3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제30차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명지대 朴星洙(외교65-69)초빙교수가 연사로 초빙돼 ‘북한 핵문제의 역사와 대응전략’이란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동송클럽은 분기별 포럼을 비롯해 송석회(바둑), 세토회(등산), 씨네클럽(영화) 등의 동호회 모임과 봄·가을 국내외 여행 등을 통해 친목을 다지고 있으며, 내년 입학 50주년을 맞이해 기념행사를 준비 중이다.

趙在範동문 골프 우승 영문학과동창회

영어영문학과동창회(회장 柳津)는 지난 5월 31일 경기도 용인 레이크사이드CC에서 20여 명의 동문이 참가한 가운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신페리오 방식이 적용된 이날 경기 결과 네트스코어 69타(그로스 85타)를 기록한 趙在範(영문84-88)동문이 우승을 차지했으며, 메달리스트는 81타를 친 李東應(영문77-81)동문에게 돌아갔다. 준우승은 崔美卿(영문83-87)동문, 그밖에 梁容碩(영문82-89)동문이 니어리스트, 林世鎬(영문95-99)동문이 롱기스트에 올랐다.

동문 가족 걷기대회 열어

사회학과동창회

사회학과동창회(회장 張太平)는 지난 6월 4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 잔디밭에서 70여 명의 동문 가족이 참가한 가운데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오전 11시 교수회관에 집결한 동문들은 사범대-자하연-미대-사회대를 걸으며 청록으로 물든 캠퍼스의 모습을 둘러봤다. 교수회관으로 돌아온 동문 가족들은

동창회에서 준비한 바비큐 등 음식을 나누고 훌라후프, 공 굴리기, 제기차기 등의 게임을 즐기며 친목을 도모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모교 鄭一均학과장은 사회학과 대표 학술지인 ‘Development and Society’가 국제적으로 우수한 인용등재 사이트인 ‘SCOPUS’에 등재됐다고 밝혔다. ‘Development and Society’는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 주제들을 다루는 영문 학술지로 6월과 12월 발행한다.



申京鐵·金燦照동문 1위 이순테니스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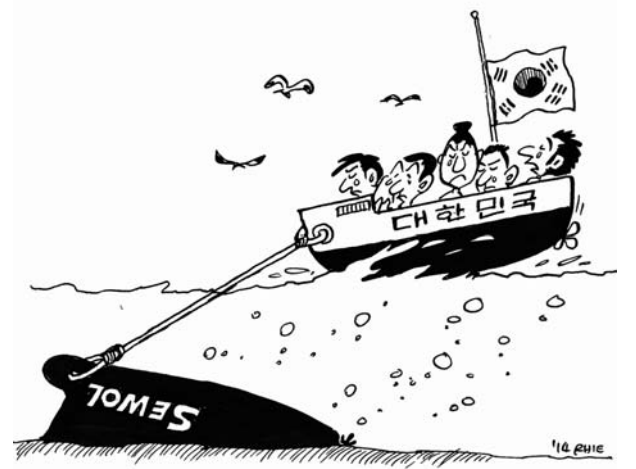
60세 이상 테니스 동호인으로 구성된 이순테니스회(회장 韓仁敎)는 지난 5월 10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테니스코트에서 15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제71회

테니스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서 申京鐵(행정64졸)·金燦照(상학62-66)동문 조가 1위에 올랐다.

준우승은 洪明熹(법학55-59)·李正洙(회화58-64)동문 조, 3위는 韓榮成(전문기상59-63)·曹鍾守(잠사66-70)동문 조가 차지했다.

만평

李元馥



졸업 40주년 기념행사 의대 28회 동기회

의대 28회 동기회(회장 殷熙哲)는 지난 5월 28일 졸업 40주년을 맞아 모교 연건캠퍼스 의대 행정관 대강당에서 ‘동창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동기회는 40주년을 기념해 기초과학연구원 申喜燮(의학68-74)인지·사회성연구단장과 북경 애증장애인 金尙鉉(의학68-74)훈련원장에게 ‘자랑스러운 서울의대인상’을 수여했다. 또 동창회에 1천만원, 모교에 3천만원의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입학 30주년 사은회 화공 84학번 동기회

화학공학과 84학번 동기회(회장 林顯東)는 지난 5월 3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스승을 초청해 입학 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李華榮·李基俊·李賢九·崔昌均명예교수와 尹寅燮·李昇鍾교수를 비롯해 동문 28명 등 총 34명이 참석했다.

사은회는 교수님들에 대한 감사패 전달, 개인별 근황소개, 학창시절 사진 감상 순으로 진행됐다. (南)

since 1999

S. Noble 은
다이아몬드와 큐빅의
차이입니다

국내최초, 최고의 노블레스 결혼정보클럽 - S. Noble

겉으로는 비슷비슷해보이는 다이아몬드와 큐빅이 그 가치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 차이듯, 결혼정보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노블은 금방 생겼다가 없어지는 수많은 결혼정보회사와는 달리
십수년의 노하우와 상류층 인맥관리로 대한민국 노블레스 결혼문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지금, 느껴보십시오.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에스노블만의 뿌리깊은 성공매칭서비스를.

- 엄정한 심사를 통한 우수한 멤버들로 업계 최고의 성혼율을 자랑
- 업계최초로 2명의 매치메이커가 원본의 회원들을 관리하는 세심한 서비스
- 고급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클럽 외부 이상형까지의 외부매칭 서비스
- 고객외의 상황까지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
- 회원가입문의 T.02.3445.4777 www.snoble.com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48-7호 로데오몰라자 7F

대한민국 1%의 결혼정보클럽 -

S. Noble



金俊吉·韓永愚동문 특강

心史會

心史會는 지난 5월 28일 서울 원서동 한 음식점에서 오찬모임을 가졌다.

심사회는 심리·사학·사회학과 57학번 동문 가운데 교양학부 문리대 D반에서 1년간 함께 공부한 인연으로 맺어진 모임이다.

1993년 4월 모임이 결성된 이후 간헐적으로 만나오다 2012년부터 연 2회 모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

으며, 이날은 국내 회원 40명 중 16명이 참석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필리핀 아시아 태평양대에서 한국사를 강의 중인 金俊吉(사회57-62)동문과 40년 넘게 鄭道傳을 연구 중인 모교 韓永愚(사학57-62) 명예교수가 특강을 했다.

심사회 회원은 총 64명이며, 발족 때부터 회장 없이 林采郁(사회57-64)·任漢淳(사학57-61)·韓基昊(심리57-61)간사가 이끌고 있다.

제주도 맛 기행 다녀와

AMPFRI동창회

식품 및 외식산업보전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朴恩熙)는 지난 6월 13~15일 2박 3일간 제주도 맛 기행을 다녀왔다.

이번 맛 기행에는 朴恩熙회장을 비롯해 李峰萬(21기)·金虎永(30기)수석부회장 등 38명의 동문이 참가했다.

예비역 高喜在준장 강연

ASP동창회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동창회(회장 崔巨勳)는 지난 5월 13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李宜洙전임 회장, 崔巨勳회장, 鄭元錫사무총장 등 3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국군 정보사령부 1여단장을 역임한 高喜在

(19기) 예비역 준장이 강사로 나서 '전원의 꿈과 현실'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강연은 강사 본인이 겪은 경험을 토대로 전원생활을 꿈꾸는 원우들이 꼭 알아야 할 점들을 정리해주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동창회는 매월 둘째 화요일 포럼, 넷째 토요일 등산모임을 갖고 있다.

임원 대상 세미나 개최

AIC동창회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동창회(회장 李世漢)는 지난 6월 24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 3층 체리홀에서 李世漢회장, 모교 행정대학원 李碩遠교수를 비롯해 임원진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金明龍(12기)원장이 '사물인터넷 동향 및 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새 회장에 成耆洪동문 축산학과동문회

축산학과동문회(회장 金泰奉)는 지난 5월 10일 관악캠퍼스 버들골에서 '가자 다함께'란 슬로건을 내걸고 총회 겸 '축산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53학번 동문부터 재학생까지 2백20여 명이 참석해 캠퍼스 투어, 두레 풍물패 공연 감상, 화합의 마당 등의 프로그램을 즐겼다.

金泰奉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모교 평장캠퍼스 활성화로 계기로 축산학 분야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며 "FTA체결 등으로 국내 축산업이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우리 동문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회에서 임원 개선을 통해 CTC바이오 成耆洪(축산82-89) 대표가 신임 회장으로 추대됐다.

이날 행사를 위해 회장단을 비롯해 카길애그리퓨리나, 이지바이오 등 20여 동문 업체에서 1천8백만원 상당의 상품을 찬조했다.



1기 회원에게 원로우대 공로상을 시상했다. 좌로부터 황정환·이광호·장행수·이병례·김광현·강순규·윤홍식·최치현·강진기 동문

골프대회서 7기 우승 차지

IFP동창회

미래지도자 인문학과정동창회(회장 金光憲)는 지난 6월 21일 경기도 이천 마이더스 골프&리조트에서 1기부터 11기까지 6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기에서 7기가 우승을 차지해, 2회 대회부터 연속 3연패를 기록했다. 경기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수 우승 : 7기(권기대·이영재·정찬식·최경한) ▲기수 준우승 : 9기(강덕용·나준흠·박종원·박천현) ▲기수 분발상 : 5기(김광현·김용갑·박수찬·이승용) ▲메달리스트 : 이영재(7기) ▲조우

승 : 이영재(7기)·정찬식(7기)·모휘(8기)·성재국(8기) ▲다보기상 : 진봉재(8기) ▲대과상 : 최경한(7기) ▲소과상 : 신기선(4기) ▲베스트 드레서상 : 정지원(4기) ▲고군분투상 : 배성수(7기) ▲감투상 : 김광현(5기)·하상욱(6기) ▲공로상 : 1기 ▲특별봉사상 : 김현기(9기)

남양주시 예봉산 등산

ACPMP동창회

건설산업최고전략과정동창회(회장 鄭秀顯)는 지난 5월 31일 경기 남양주시 예봉산에서 俞炳坤(4기)등산회장을 비롯해 5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등산모임을 가졌다. (邊)



으아리 카페&펜션 에 오신 것을 환영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연 속 에서 소중한 추억을 만드시고 넓은 정원, 어비게극 유명산 휴양림이 한눈에 들어오는 가평 으아리 카페&펜션에서 진정한 휴식과 함께 건강도 얻어가세요 우리 으아리 펜션은 우리나라 전통가옥인 한옥의 아름다움에 현대적 인테리어가 적절히 조화되어 자연과 장인의 숨결이 묻어있는 한옥펜션입니다.

5개의 독채 펜션은 모두 원적외선을 방사하여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세포의 생리작용을 원활하게 하는 황토와 신선한 나무 향을 오래도록 느낄 수 있는 편백나무, 잣나무만을 사용하여 지내시는 동안 건강에도 유익할 뿐 아니라 현대식 건물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색다른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천 여 평의 정원에서는 절기마다 달라지는 전 세계 여러 종류의 야생화들이 눈을 즐겁게 하며, 전문 조경가가 세심하게 가꾸는 나무들이 물과 마을을 힐링 해주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펜션 으아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약 및 문의 010-2047-7158(오정현)

단체 세미나 및 레크레이션 예약가능! 한갑잔치, 피로연, 약혼식 행사 가능! 무대, 음향 출장부대 가능!

찾아오시는 길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어비산길 16 / 으아리 카페&펜션

• 변기통과 낚시터

어느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변기통에서 신나게 낚시를 하고 있었다. 의사가 와서 물었다. “고기 잘 잡혀요?” “당신 미쳤어? 변기통에 물고기가 있어?” 그러자 의사는 드디어 환자가 정신을 되찾았구나 하고 기뻐했다. 환자는 의사가 가는 것을 보고 주위를 둘러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휴~, 좋은 낚시터 뺏기는 줄 알았네.”

• 모기의 외출

해가 뉘엿뉘엿 질 즈음에 시아버지 모기가 외출 준비를 하고 나가려고 하자 며느리 모기가 상냥하게 물었다. “아버님~ 저녁 진지상 봐 놓을까요?” 그 말을 듣고 시아버지 모기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필요 없다. 순한 놈을 만나면 저녁 먹고 올 것이고, 모진 놈을 만나면 영영 돌아오지 못할 것이니 그리 알아라.”

(독자제보 환영)



힘이 되는 작전타임, 하나은행에 있습니다

결혼할 때

집 살 때

창업할 때

유학 보낼 때

은퇴할 때까지

당신의 금융생활에 힘이 되는 작전타임으로

하나은행이 당신의 꿈을 후원합니다



목돈만들기 작전타임

결혼자금 / 자녀교육자금 / 자동차구입자금

긴급자금 작전타임

창업자금 / 주택구입자금 / 전세자금

은퇴자금 작전타임

노후자금 / 자녀결혼자금 / 상속증여 / 여행자금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또는 하나은행 홈페이지, 영업점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하나은행 공법감사인 심사됨 제 2014-13998(2014.04.14) / CCH115-14015-62

힘이 된다  하나은행

일본동창회 尹仁虎회장 (동경이과대학 교수)

지난 6월 4일 일본동창회 창립총회에서 동경이과대학 尹仁虎(기계공학 67-71)교수가 초대 회장에 선출됐다. 그동안 尹회장은 동경지부동창회장으로 재일본 동문들의 결속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총회서 만난 尹회장은 “큰 영광으로 생각하는 한편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본국 동문들의 따뜻한 관심과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 일본에는 언제 오셨는지.

“조부 때부터 일본 동경에 살았어요. 재일교포 3세죠. ‘한국을 알아야 한다’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모교에 입학했습니다. 1971년 다시 일본으로 돌아왔죠.”

— 회원들이 대부분 교포이신가요.

“정확하게 조사해보지는 않았지만 대략 80% 이상이 재일교포 2세, 3세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경에 약 2백명, 오사카에 40여명의 회원이 활동 중입니다. 동창회 활동은 40년 전부터 단과대별로 이뤄져왔고 공대, 상대, 의대 동문이 많



경지부와 오사카지부와 규슈·아마구치지부, 동북·북해도지부 증설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어요. 교포 중 모교에 유학 중인 학생과 졸업생 명단을 모교와 상의해 수집하려고 합니다. 일본의 우수 고등학생 중 모교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가교역할도 할 수 있을

“회원 확충·재정 기반 다지겠다”

은 편이고요.”

— 앞으로 계획은.

“회원 확충과 재정 기반을 다져놓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죠. 우선 현재 동

것 같습니다.”

— 동동창회에 바라는 점이라면.

“일본동창회는 큰 바다를 향해 출항한 작은 쪽배 같은 존재입니다. 모교와

총동창회의 협력과 도움을 받으면서 모교의 발전에 미력이나마 공헌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이나 동문들께서 일본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할 때 동창회에 연락주시면 힘닿는 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尹회장은 재학시절 에피소드를 묻는 질문에 “어느 교수님의 일본어 서적 번역을 부탁 받고 A학점을 받았던 기억과 공대캠퍼스가 있던 태릉의 한 배밭에 동기들과 몰래 들어가 배를 따먹었던 추억이 떠오른다”며 웃었다.

尹회장은 모교 졸업 후 동경대에서 석사, 히토츠바시대에서 박사과정을 마쳤다. 이후 동경이과대학에 근무하며 경영대학장, 경영대학원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는 학내 스마트 모바일 연구 프로젝트 위원장을 비롯해 일본 모바일콘텐츠포럼 회장, 문부과학성 대학평가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南)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법대동창회 金東建회장 (법무법인 바른 명예대표 변호사)

지난 5월 법과대학동창회 신임 회장으로 법무법인 바른 金東建(법학65-69)명예대표 변호사가 선출됐다. 金회장은 재경 의성군향우회장, 캠퍼리지대한민국동문회장, 불교포럼 상임대표 등 여러 모임을 맡고 있다. 지난 6월 19일 서울 대치동 법무법인 바른에서 金회장을 만나 동창회 운영 계획 등을 들어봤다.

— 많이 바쁘시죠.

“장욱진미술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얼마 전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개관식을 가졌어요. 그 준비로 조금 분주했죠. 張旭鎭선생님 그림을 좋아해 1980년대 법관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왔어요. 사실



— 내년이 입학 50주년인데.

“鄭在龍동기회장을 중심으로 문집 편집위원회와 기념행사 운영위원이 구성돼 의미 있는 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내년 연말에는 모든 걸 내려놓고, 조용히 저를 위한 삶을 살고 싶어요. 법관 퇴임 후 지난 10년간 변호사 활동하며

“새 사업 추진보다 기존 업무 충실”

올해 말로 이사장부터 향우회장, 불교포럼 대표 등 모든 직함을 내려놓으려고 했어요.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 동창회장까지 덜컥 맡아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 습니다.”

— 동창회 운영에 대한 구상은.

“법대 학장 이·취임식 때 처음 동창회 사무실도 둘러보고 역사전시관도 봤어요. 업무 과약 중인데, 전임 회장님들이 하신 일을 잘 이어받아 내실을 기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법대동창회는 기틀이 잡혀 있고, 친목·모교지원 사업 등이 잘 진행되고 있어 새로운 사업을 더 하기보다 기존 사업을 충실히 하려고 합니다. 다만, 10여 년 후배들로부터 동창회가 좀 노쇠했다는 의견이 있어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임원들과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차를 매년 7만km를 탔더라고요. 이젠 멈춰 서야죠.”

— 동문들에게 한 말씀.

“법원장 재임시절 늘 강조하던 말이 있어요. 3P, 즉 Partnership, Passion, Participation. 동료의식, 열정, 참여 이 세 가지는 친목단체에서도 중요한 지표죠. 회원 모두가 서로 마음을 나누는 동창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金회장은 제1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전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법원행정처 조사국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2005년 공직 마감 후 법무법인 바르른을 이끌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 영남대 이사장, 세종문화회관후원회장, 나눔문화 상임고문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南)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AFP동창회 高永一회장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올해 초부터 인문대학 최고지도자 인문학 과정(AFP)동창회장을 맡아 열정적으로 운영 중인 宇理회계법인 高永一(대학원82-84·6기)공인회계사를 지난 6월 11일 서울 대치동 사무실에서 만났다. 高회장은 “인문학 공부와 친구를 무척 좋아하는 순수한 분들의 모임의 대표를 맡아 자랑스럽다”며

“사기업의 CEO부터 공기업의 임원진, 정부기관·국회 관련인사까지 사회 전반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40~60대 6백여 회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동창회 모임은 대부분 부부동반 행사로 진행되고 있어서 함께 오실 것을 적극 권유합니다. 기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작은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 1회 해외 인문학 기행, 골프대회 등을 진행하며 올해는 9월 21일 골프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회원들에게 한 말씀.

“저는 동창회장을 맡고 있는 걸 떠나서 우리 과정을 사랑합니다. AFP에서는 근본을 중요시하는 인문사상과 철학적인 가

“기별 학습모임에 전체 참여 유도”

동창회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 ‘공부하는 동창회’로 유명한데.

“타 최고경영자과정에 비해 남다른 학습 DNA를 가진 회원들이 많습니다. 논어 학이편을 보면 ‘學而時習之 不亦說乎’라고 있습니다. 이 문구가 우리 동문들에게 딱 맞는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과정수료 후에도 활발한 학습활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기수별 심화학습과 분기별 2회의 전체기수 합동심화학습이 진행 중입니다. 인문학의 다양한 학습기회를 동창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려 합니다. 최고의 강사진 섭외는 물론이고 기수별로 진행되던 심화학습의 경우에도 모든 기수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해 동문들의 전반적인 학습 분위기를 고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회원 소개 및 향후 계획은.

치를 가르칩니다. 우리 과정에 참여하는 동문들은 순수한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바쁘셔서 학습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가끔적이면 동참하셔서 지적인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합니다.”

高회장은 건국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1982년 공인회계사 취득 후 1997년 동료 회계사들과 우리회계법인을 설립해 대표를 지냈다. 우리회계법인은 업계 10위권으로 현재 2백여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현재 KBS강태원복지재단 이사, 상허문화재단과 모교 경영대학원동창회 감사로 활동 중이며, 슬하에 3녀를 두고 있다. 위과사나 명상법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며 우주·천체 관련 서적을 즐겨 읽는다. (邊)



TENCATE Tecasafe® plus



삼일방직은 2013년 7월 난연 및 안전보호용 원단 생산의 글로벌 전문기업 TenCate사와 'Tecasafe Plus'의 생산기술 및 한국 내 원단 생산·판매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Tecasafe Plus 원단은 산업현장 및 캠핑 등 레저생활을 위한 아웃도어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적 화재, 전기아크 등의 위험에 대응하는 탁월한 난연 기능의 소재입니다. 뛰어난 열·화상 방어력과 마모 저항성, 내구성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셀룰로오스계 섬유의 함유로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밝은 색상으로 쉽게 염색이 가능해 산업안전복은 물론 레저용 패션의류 제작이 가능합니다.

ECOSIL®

Lenzing FR®

Modal®

TENCEL®

Viscose®

 **삼일방직주식회사**

본사·공장: 경북 경산시 진량읍 가야리 2-1 전화: 053)817-3131~6 팩스: 053)817-3139
 비산 공장: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2009-64번지
 서울영업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4-31 섬유센터빌딩 8층 전화: 02)528-4431

클로즈업

로봇공학 분야 석학 朴鍾寓교수



미국, 브라질, 스페인, 스웨덴, 폴란드, 이집트, 나이지리아, 인도, 러시아... 모교 기계항공공학부 朴鍾寓교수의 온라인 로봇공학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의 국적이다. 한국 학생은 단 두 명. 이들은 대표적인 MOOCs(Massive Open Online Courses) 개방형 온라인 강좌) 사이트인 edX에서 시공간의 제약을 초월해 모교 학생들과 동일한 강의를 들으며 공부하고 있다.

하버드대와 MIT가 공동 설립한 edX는 세계 35개 명문 대학과 협약해 각 대학의 우수한 강의를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모교는 본회가 지원하는 70억원 규모의 장학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열린 강좌’의 국내 일반인 공개와 더불어 edX에 SNUx(<https://www.edx.org/school/snux>)로 가입, 모교의 우수 강의를 세계에 공개하기 시작했다. SNUx에 차교수의 ‘로봇 역학 및 제어’(Robot Mechanics and Control) 강의가 공개된 것은 지난 3월. 먼저 공개된 파트 1은 1만3천여 명, 6월에 공개한 파트 2는 지금까지 약 7천명이 수강신청했다.

‘집안일하는 로봇’ 시대 온다

대중적인 관심을 받는 로봇 분야지만 그 수업은 ‘쉽고 재밌는 맛보기식 강의’가

아니다. 로봇을 만드는 과정이나 흥미로운 동영상은 보여주지도 않는다. 빠르게 발전하는 로봇 분야의 최신 동향을 소개하는 대신 10년, 50년 뒤에도 가치 있는 로봇의 수학적·물리적 기초를 가르친다. 수업을 이해하려면 대학 2학년 수준의 관련 전공 지식이 필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과 직장인, 10년 넘는 경력의 공학도 등 학습자들의 열기는 차교수를 깜짝 놀라게 했다. 지난 6월 30일 연구실에서 만난 그는 “총동창회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을 일하기에 너무나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했다.

“나름대로 로봇역학을 가르치는 새로운 접근법이 있었고, 10여 년 전부터 새 교재

를 준비해왔는데 동기 부여도 될 겸 MOOCs에 참여했습니다. 다만 영문 자막을 일일이 감수하고, 전 세계 학생들한테 배포한다고 생각하니 교재에도 신경 쓸 게 많아 힘든 부분도 있었어요.”

온라인 수업이지만 매주 과제와 중간·기말고사 등 모교 학생들과 거의 같은 과정으로 진행됐다. 전체의 10%가 끝까지 수업을 들었고, 그 중 최종 3백20명 정도가 합격 점수로 수료했다. 이는 edX의 다른 과목들 과도 비슷한 비율이다.

“예전에 통신학교, 사이버대학 등이 등장할 때마다 대학의 존재가 위협하다고 경

MOOCs의 영향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으로 MOOCs가 어떻게 진화하는지 유심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죠. edX뿐만 아니라 Coursera, Udacity 등에도 매일 새로운 MOOCs 과목이 올라옵니다. 독자적으로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은 물론, 미래 대학교육에 대해 가능한 새로운 ‘한국적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해요. 전 세계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고,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을 서울대가 앞장서서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적 로봇誌 편집장 맡아

차교수는 미국 MIT에서 전기전자공학부 학사과정, 하버드대에서 응용수학 석·박사 과정을 밟았다. 수학, 기계역학, 인지과학까지 복합적이고 다학제적인 학문이라는 점에서 로봇에 커다란 매력을 느꼈다고 한다. 그는 “학습능력이 발달하면서 ‘빨래 개는 로봇, 설거지 해주는 로봇’처럼 사람이 귀찮아하는 단순노동부터 대신해주는 로봇의 시대가 머지않았다”고 말했다.

어바인 캘리포니아주립대 기계항공공학과 조교수를 거쳐 1995년부터 모교에 재직 중인 차교수는 부친 朴洪圭(조선항공 53-57)동문, 모친 元賢淑(약학53-57)동문, 아내 金賢美(산업디자인89-93)동문 등 가족을 통해서도 모교와 연을 맺고 있다. 미국 전기전자공학회(IEEE) 석학회원이며, 세계적인 로봇공학 학술지인 ‘Transactions on Robotics’ 편집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秀)

국립수목원 李惟美원장

“연구자로서, 공직자로서 평생을 몸담아 온 수목원의 원장이 돼 가슴 벅찬 감동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산림청 개청 이후 47년 만에 첫 여성 수목원장이 탄생했다. 李惟美(임학81-85)동문이 바로 그 주인공. 李동문은 모교 수목원 조교와 한국식물원협회 사무국장 등을 거쳐 지난 1994년 임업연구사로 공직에 입문한 뒤 국립수목원 개원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국내 수목원과 식물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李원장은 그동안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나무 100가지’,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 도감’, ‘광릉숲에서 보내는 편지’, ‘한국의 야생화’ 등의 저서와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일반 국민이 식물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애써왔다.

학과 홍일점에서 식물 전문가로

광릉숲의 보전과 산림식물의 보전·관리를 총괄하게 된 李원장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수목원, 식물원, 정원문화의 발전에 기여는 물론 산림청의 위상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국립수목원과 세상이 만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숲을 돌려주자’는 것입니다. 수목원을 식물산업, 기초 생물 학문의 플랫폼으로 만드는 동시에 사람들이 위안을 받거나 영감을 얻을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점점 숲, 식물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어 국립수목원이 식물 문화를 이끌어 가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해야죠.”

李동문은 어릴 때부터 미술, 디자인, 건축 등 무언가 아름다움을 재현하는 일에 관심이 많았다. 임학을 선택한 이유는 가장 스케일이 큰 자연을 대상으로 설계하고 조성하는 분야였기 때문.

“당시 문과 여학생에게 영문학이나 식품영양학 등이 인기가 높았어요. 뭔가 새로

연구원으로 출발해 첫 여성 원장에 올라

“식물 87만종...국내 생물종연구의 메카로”

운 일을 좋아하는 저에게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건 흥미를 끌지 못했죠. 꽃을 좋아하는 엄마의 영향도 있었구요.”

그렇게 입학한 임학과에 여학생은 李동문 한 명뿐이었다. 나무를 직접 심고 관리하며 베야 하는 등 거친 일이 많아 전통적으로 여학생이 없었다. 60년 임학과 역사상 李원장이 여섯 번째 여학생으로 기록될 정도였다.

공대의 많은 홍일점들이 학과 동기 또는 선배와 결혼하듯 그 역시 동기인 국립생물자원관 徐敏桓(임학81-85)생물자원연구부장과 짝을 이뤘다. 徐동문은 산림생태학을 공부해 이들은 ‘부부 숲 박사’로도 불린다. 남편이 숲 생태계 전반을, 李동



문은 그 안의 꽃과 풀, 나무 하나하나를 연구한다.

“석사 과정 때 지도교수님이 ‘아까시나무 꽃이 피는 시기에 따라 꿀의 생산량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새벽, 아침, 점심, 저녁 등 하루 4차례씩 꿀을 채취해 연구하라’는 과제를 내주셨어요. 그때 한밤중에도 말없이 함께 산행을 해준 게 지금의 남편이었어요. 데이트도 주로 산에서 했고 신혼여행 때도 숲을 찾아 나섰죠.”

식물분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李동문은 수목원에 들어온 후 희귀식물을 복원하면서 식물표본을 확보하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식물표본은 생물주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록이다. 1999년 국립수목

화제의 동문

원 개원 당시 2만여 점에 그쳤던 식물표본은 그의 노력으로 현재 미국의 국립수목원(60만여 점)을 능가해 87만여 점을 보유하며 전 세계 학자들이 함께 연구하는 공간으로 성장했다.

“휴가 때 수목원 방문해 주세요”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게 많아요. 아름다울 뿐 아니라 단위면적당 생물다양성이 가장 높죠. 숲을 푸르게 만든 조림의 효시가 된 광릉숲을 갖고 있는 등 5백년 넘는 역사가 숨쉬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에 등록된 우리나라 생물정보의 82%를 국립수목원 국가생물지식정보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단순히 좋은 숲에 많은 식물을 심어 놓은 곳 정도라면 여기는 분들이 많아 안타까워요. 이번 여름휴가 때는 국립수목원을 방문해 보면 어떨까요? 그럼 수줍은 꽃이, 나무가 여러분에게 또 다른 행복을 선사할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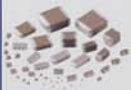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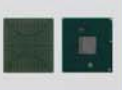
경기도 포천에 자리한 국립수목원은 화~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하며, 인터넷 예약제로 운영 중이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매 정시에 진행되는 수목원 해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65세 이상은 무료이며 성인 요금도 1천원을 넘지 않는다. 1일 주차비는 1천5백원~5천원 선이다. (南)



오늘 당신 때문에 웃은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보이지 않는 기술로
온 세상을 즐거움으로 가득 채우는
기업이 있습니다

수많은 전자제품의 핵심부품을 만드는 삼성전기
최신 스마트 폰에서 3D 스마트 TV, 태블릿 PC
노트북, 멀티미디어, 게임 콘솔, 내비게이션까지
오늘 당신이 누린 수많은 즐거움 속에는 삼성전기의
첨단기술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큰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생활 -
보이지 않는 기술에 담긴 삼성전기의 꿈입니다

MLCC 	기판 	파워모듈 	정밀모터 
카메라 모듈 	디지털튜너 	네트워크모듈 	IT솔루션 

보이지 않는 사랑, 삼성전기

“저개발 회원국도 메달 하나씩 딸 수 있도록 응원”

동문들 찾아서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 金榮秀위원장

인천아시안게임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는 북한의 참가로 아시아올림픽 픽평의회(OCA) 45개 회원국이 모두 참여하는 ‘퍼펙트 아시안게임’이 될 전망이다. 북한은 14종목에 1백50여 명의 선수를 출전시킨다. 이번 대회가 냉각된 남북관계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7년간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를 맡아 예산 삭감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45억 아시아인의 축제’를 완성 중인 金榮秀(법학60-64)위원장을 지난 6월 26일 인천 송도 미추홀타워에서 만났다.



대담 : 李五峰(아시아N 편집위원장)·논설위원

— 북한의 참가로 어느 때보다 기대가 높습니다.

“조직위를 비롯해 정부, 인천 그리고 OCA,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합심해 북한의 참가를 이끌어 냈습니다. 조직위는 북한이 참가할 것이라 굳게 믿고 이미 지난해 남북협력팀을 만들어 입·출국 안전, 수송, 숙박 등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해오고 있었어요. 저 역시 이번 대회가 경색된 남북관계를 푸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 북한 미녀 응원단도 참가한다는 말이 있던데.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응원단이 올 것은 확실하지만 그 구성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 최근에 몽골을 다녀오셨는데.

“몽골 정부 초청으로 지난 6월 20~24일 방문하고 왔어요. 몽골국립교육대에서 명예 스포츠박사 학위와 몽골올림픽위원회로부터 ‘올림픽 골든스타훈장’을 받았습니다. 저 개인이 아니라 우리 조직위에 주는 거라 생각해요.

이번 대회 유치 단계부터 중요하게 펼친 사업 중 ‘비전 2014 프로그램’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 스포츠 지도자를 파견하거나 장비 지원, 선수 전지훈련 등을 돕는 프로그램이죠. 그동안 이런 큰 스포츠 이벤트를 여는 주최국은 자국의 문화·경제력을 자랑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그런 국가주의를 넘어서자는 뜻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여태껏 동티모르 등 세 나라는 메달 하나 못 땀고, 9개 나라가 금메달이 없습니다. 메달을 따야 그 나라 국민들이 즐겁게 아시안게임을 보지 않겠어요. 메달 하나라도 가져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인데, 그 혜택을 몽골이 많이 받았어요. 그 감사의 표시로 저를 초청했던 것이죠.”

— 대회 준비상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아시안게임에는 49개 경기장과 48개 훈련시설이 사용될 계획입니다. 49개 중 17개가 신설된 것이고요. 조직위는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종목별로 다양한 테스트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죠. 지난 6월 1일에는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개장을 기념해 한국축구대표팀과 쿠웨이트대표팀 간 축구경기를 열고 입·퇴장, 교통대책, 안전대책 등 대회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성공적인 대회가 되기 위해선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한데.



“하루쯤 ‘인천의 날’로 정해 경기장 찾아주길”

北선수·응원단 참가… 남북관계 회복 기대

“개막식 티켓은 곧 매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드컵도 끝나고 했으니 이제는 TV 광고를 비롯해 각종 홍보활동을 대폭 강화할 생각입니다. 인천지역에서는 초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는 초등학교생부터 아시안게임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 ‘1가족 1경기 관람’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함이지요.

대회기간에 2백만명이 인천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외국인이 10% 정도 될 것 같고요. 가까운 중국에서 10만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 5만명의 시민 응원단을 조직해 성숙한 응원문화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지난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러시아 관객들이 자국 선수만 응원하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니다’란 생각이 들었죠. 1전~2전명의 국기별 응원단을 조직해 자국 응원단이 많지

않은 국가의 선수들도 신명나게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예요.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도 소중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 林權澤감독이 연출하는 개·폐회식에 대한 기대도 높습니다.

“대형 국제스포츠 이벤트의 개막식은 이번 아시안게임이 아니라도 일생에 꼭 한번은 가볼 만합니다. 이번 대회만 해도 불과 2시간짜리 개막식에 2백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대한민국 최고의 감독으로 불리는 林權澤, 張鎭 감독 등이 모여 빅쇼를 선보입니다.

세계적인 한류스타 및 아이돌그룹이 대거 참여하는 한류콘서트와 高銀시인이 대회를 위해 헌정한 시에 곡을 붙인 노래를 9백19명으로 구성된 인천시민합창단이 부를 계획입니다. 국기 및 대회기 입장, 선수대표선서, 성화봉송 및 점화 등에서는 그동안 한국

을 빛낸 스포츠 스타들을 만날 수 있고요.

그밖에 성악가 曹秀美씨, 인기 연예인 李英愛씨와 張東健씨, 중국의 유명 피아니스트 郎朗 등이 개회식에 출연할 예정입니다. 손자들 손 꼭 붙잡고 오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 이번 대회 관련 포인트와 위원장님께서 예상하는 한국의 성적은.

“한국은 1998년 방콕아시안게임 이후 4차례 대회 모두 중국에 이어 메달순위 2위를 지켜 왔죠. 이번 대회에서도 중국과의 메달 격차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프로농구연맹 총재를 지낸 만큼 한·중·일 간 농구경기에 관심이 많고, 조직위 홍보대사인 孫延在, 朴泰桓 선수의 경기는 꼭 찾아가 볼 생각입니다.”

— 어떤 대회로 기억되기를 바라시는지.

“올해 17회를 맞는 아시안게임이 개최국 수도가 아닌 도시에서 열린 것은 단 세 번에 불과합니다. 1994년 히로시마, 2002년 부산, 2010년 광저우 정도죠. 그만큼 수도가 아닌 도시에서 쉽게 얻기 힘든 기회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인천의 도시브랜드뿐만 아니라 세월호 사건으로 실추된 국가브랜드도 ‘리브랜딩(Re-Branding)’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최근 국제스포츠 대회가 너무 개최국 위상제고에 중점을 두는 데 대해 우려하며 이번 대회가 45억 아시아인 전체의 잔치로서 공정한 대회운영, 성숙한 응원문화가 빛나는 ‘화합과 배려의 대회’로 기억됐으면 합니다.”

— 앞으로 계획은.

“공적인 업무에서 물러나 그동안 일에 몰두하느라 제대로 하지 못했던 등산과 여행에 집중하고 싶어요. 친구들이 벌써부터 대회를 끝내고 자기들과 함께 하길 기다리고 있어요. 벌써 세 번째인데, 내년에 히말라야 트레킹을 떠날 생각입니다.”

— 마지막으로 동문들에게 한 말씀.

“대회 기간 중 하루 정도는 ‘인천의 날’로 정해 꼭 한 번 경기장을 방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이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열리기 때문에 신선한 감이 떨어지는 면이 없지 않지만, 동문 여러분께서 각별히 아시안게임에 관심 갖고 오셔서 인천을 즐겨 주십시오. 대회 기간 곳곳에서 다양한 부대행사가 펼쳐지고, 곳곳에 숨어 있는 먹을거리, 볼거리가 무궁무진합니다. 몰라보게 발전한 인천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사진·정리=金南柱기자)

• 金위원장은

인천 출신으로 1965년 사법시험(제5회)에 합격, 법조인의 길로 들어섰다. 1992년까지 서울지검 검사, 청주지검 제1지청장, 서울지검 공안부장, 국가안전기획부 1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14대 국회의원,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이어 33대 문화체육부 장관을 지낸 후 국

립중앙박물관과 예술의 전당 후원회장으로 활동했으며 2004년 프로농구연맹 총재를 맡으면서 체육계와 인연을 맺었다.

청소년 교육에 관심이 많아 1992년부터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도 운영 중이며 趙炳華시인기념사업회의 회장, 서울고동창회장도 맡았다. 황조근정훈장, 청조근정훈장 등을 수훈했으며, 저서로 ‘발상을 바꾸자 세상을 바꾸자’가 있다.

새 시대를 이끌어 갈 창조적 지성과 상상력의 공간 “CEO를 위한 인문학 강좌”

제15기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 (Ad Fontes Program)

- 교육기간 2014년 8월 19일(화) ~ 2015년 1월 6일(화)
- 수업일시
 - 매주 화요일 18:30~21:40 (1일 2강좌)
 - 국내 워크숍 (1박2일) 1회, 해외 워크숍 (2박3일) 1회
- 모집인원 45명 내외
- 입학자격
 - 공기업 CEO(회장·사장·임원)
 - 행정,입법,사법부의 고위 공직자
 - 금융,언론,의료 등 사회 각계각층의 고위 전문직 인사
 -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지도급 인사
- 교육내용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인간과 문화에 대한 원천적 이해를 추구하는 인문학적 지혜와 지식을 제공
- 접수기간 2014년 7월 1일(화) ~ 2014년 7월 25일(금)
홈페이지 온라인 지원
- 문의처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 사무국
전화 : 02) 880-2570 / 팩스 : 02) 871-0064
이메일 : apply@snuafp.com
홈페이지 : www.snuafp.com

제12기 미래지도자 인문학과정 (In Futurum Program)

- 교육기간 2014년 8월 27일(수) ~ 2015년 1월 14일(수)
- 수업일시
 - 강의 (1일 2강좌) 매주 수요일 18:30 ~ 22:00
 - 오리엔테이션 1박 2일
 - 해외 문화탐방 2박 3일
- 모집인원 40명 내외
- 입학자격
 - 공기업 상급 관리자 및 공무원
 - 법조, 금융, 의료 등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직 종사자
 - 개인사업자
 -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 주 제 소통의 인문학 - 삶을 넘어 삶과 인간으로
(미래를 위한 잠깐의 쉼)
- 접수기간 2014년 7월 1일(월) ~ 2014년 7월 25일(금)
- 문의처 미래지도자 인문학과정 사무국
전화 : 02) 880-6291 / 팩스 : 02) 882-6291
이메일 : snuifp@snu.ac.kr
홈페이지 : http://www.snuifp.com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Otsuka

무심한듯 씻어도
피지와 체취를
단숨에

우르·오스 스킨워시
피지와 체취를 단숨에 제거하는 미세거품

UL·OS

남자를 아니까
오빠피부

UL·OS

“나눔·봉사로 사회적 약자의 희망 재단 만들터”

동문을 찾아서

한국장학재단 郭柄善이사장



대담 : 許英燮(이데일리 논설위원실장) 논설위원

최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전국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은 6백66만원, 국·공립대학은 4백3만원으로 나타났다.

한국장학재단은 이처럼 가계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는 등록금으로 인해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 지난

2009년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지난 6월 27일 연세세브란스빌딩에 위치한 한국장학재단 사무실에서 제2대 이사장으로서 지난 1년간 재단을 운영해온 郭柄善(교육66-70)동문을 만나 재단의 설립 목적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 이사장을 맡으신 지 1년이 지났는데, 근황은 어떠신지요.

“장학재단은 우리나라 교육복지 정책을 집행하는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처음 장학재단 이사장으로 부임했을 때 최선을 다해 봉사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책무를 맡았다는 생각에 자부심이 생기고, 또 책임감도 컸습니다. 지난 1년간 직원들과 호흡을 맞춰 일을 해보니 직원들 모두가 출중한 역량과 책임의식을 갖고 헌신하는 모습에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학재단의 정신은 ‘나눔과 봉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직원들과 합심해 우리 재단을 나눔·봉사 문화를 선도하는 허브기관으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많은 사람들이 재단에 대해 ‘학자금 대출’만 생각하는데,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세요.

“장학재단은 연간 9조원 가량의 예산을 바탕으로 크게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의 경우 가계소득에 따른 기준을 정하고 기초생활수급자부터 2분위까지는 국가 장학금 지원 기준액인 4백50만원을 전액 지원하며, 3~8분위는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조8천억원에서 올해는 3조5천억원으로 지원예산이 증가해 저소득층 학생을 중심으로 집중해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밖에 나눔지기 봉사사업, 기부금 모집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눔지기 봉사사업은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학생들에게 경험과 지식을 기부하는 형태로 현재까지 3백명이 참여했습니다. 閔庚朝 前코오롱그룹 부회장, 郭德薰 前EBS 사장, 세진에이엠 鄭忠始사장, 모교 임병원 盧東榮원장 등을 비롯한 동문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혜택을 받는 학생 수는 얼마나 되는지.

“전체 대학생의 60%가량의 학생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2013년에 1백20만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았고, 올해는 1백30만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 ‘나눔경영 전담 부서’를 따로 설치한 이유가 있으신지.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우리 재단이 학자금을 차질 없이 잘 지급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것은 기본이고, 여기에 장학 정신과 가치를 좀 더 살리고 나눔봉사 문화를 선도하자는 취지에서 전담 부서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연말에는 직원들이 기부를 통해 신용유 의자 처지에 있는 1백98



연 9조원 예산 … 올해 1백30만명 수혜 지식 기부하는 ‘나눔지기 봉사사업’ 실시

명의 학생들을 구제하기도 했습니다.”

— 임기 중 가장 역점을 둔 사업은.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소득 분류를 좀 더 엄정하게 판단해 혜택을 받는 학생들 사이에서 ‘불공정하다’는 불만의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한국장학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범정부 복지정보 연계시스템 활용이 가능해져 고소득자에 대한 부당한 학자금 지급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올해부터 이 시스템 활용을 위한 체계를 구축해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학자금 대출 규모가 커지면서 상환율을 높일 방안도 여러모로 찾아 국가부채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얼마 전 학부모들로부터 특별한 편지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만.

“재단에서 학자금 수혜를 받은 전체 학생들에게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해주는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려주고, 본인들도 그런 의

• 郭이사장은

모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나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미국 마케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위원, 한국 교육개발원장, 한국유네스코위원회 교육 분과위원, 한태평양협의회 의장, 경인여대 총장, 한국교육학회장, 세계교육협회

한국회장,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간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는 ‘민주시민교육’, ‘논리가 보인다’, ‘교육이 변해야 미래가 보인다’(공저) 등이 있으며, 국가 교육발전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포장(1986년), 국민훈장 목련장(2003년), 피터 브라이스 교육상(2012년) 등을 수상했다.

식을 갖고 열심히 공부해 많은 학생들이 상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 편지에 답장을 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대부분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국가장학금으로 자녀를 무사히 공부시키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보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분들에게는 우리가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하는구나’란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사회적 약자의 희망이 되는 힘이 있는 재단’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다짐

— 모교 재학시절 기억에 남는 은사님이 있다면.

“당시 우리 교육학과에는 鄭範謨·金宗西·李榮德·鄭元植·李敦熙교수님 등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이 포진돼 있었습니다. 남다른 이상을 가지고 역할을 하시는 그분들을 보고 배우다 보니 자연스레 좋은 인제가 많이 배웠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도교수인 李榮德교수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또 지금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鄭範謨교수님께서 처음 영문 저서를 냈을 때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3명의 서평자에 저를 포함해주신 것입니다. 보통 서평은 그 분야의 대가들이 쓰는 것이 통례인데 저한테도 써달라 말씀하시니 참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죠.”

— 사범대동창회 부회장도 맡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동문들께 동창회 활동을 장려하는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저 역시 동창회에 그렇게 적극적인 역할을 해온 것은 없습니다만, 동문들이 모교 발전을 위해 무엇인가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경우 동문들의 후원으로 학교가 얼마만큼 발전되고 있는지를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길 바랍니다. 저 또한 앞으로 모교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모교가 법인화 이후 첫 간선제 총장을 뽑았습니다. 동문의 한사람으로서, 또 교육계 종사자로서 신임 총장에게 당부나 격려의 말을 전하신다면.

“우선 축하의 인사를 먼저 전합니다. 신임 총장은 10년, 20년을 내다보는 비전을 제시해 모교가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경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邊廷朱기자·정리= 林香默기자)

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국가와 사회가 저에게 부여한 의무라 생각합니다.”

—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자의 길을 걷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아버님께서 학창시절 사범학교 진학을 원하셨는데 집안 형편상 진학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께서 이루지 못한 꿈을 제가 이어가길 바라는 마음이 크셨는지 진학을 하는데 ‘사범학교에 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제가 교육자의 길을 걷게 된 시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우리나라 교육이 올바르게 발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교육의 큰 틀 안에서 교육정책에 관해서는 초당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권이 교체돼도 교육정책만은 일관적으로 안정되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1~2년 안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 중장기 비전을 세워놓고 교육 방향을 잡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백리 깊은 나무가 천년을 이어갑니다

거친 비, 바람에도 버텨온
고려아연의 뿌리는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고려아연의 최고 경쟁력은 사람입니다.
마음껏 일하며 개개인의 창의적인 능력이 발휘될 수 있고
정당한 평가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열린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고려아연(주)
www.koreazinc.co.kr

BBDO Korea
DDB Korea
Dentsu Korea
TBWA Korea

한국에서 잘 통하는
외국광고회사처럼



해외에서도 잘 통하는 한국광고회사가 있습니다

전세계 21개 거점을 둔 글로벌 컴퍼니 이노션,
국내 광고회사 최초 슈퍼볼 광고제작,
한국형 길거리 응원장인 팬파크를 전세계로 수출,
세계 최초 아이폰 영화 '파란만장'
베를린 영화제 황금곰상 수상,
세계최초 4D 극장 광고 등으로
세계로부터 창의성과 혁신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기업에게 가장 한국적인 답을,
글로벌기업에게 가장 글로벌한 답을

INNOCEAN
WORLDWIDE



國際庭球聯盟

INTERNATIONAL SOFT TENNIS FEDERATION

會長 / Sports 外交學博士

朴 相 何

(ACAD. 국가정책 28기 회장)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3가 361-1 미주빌딩 10F TEL : 053-426-7117 FAX : 053-427-7095 Mobile : 010-4058-8811 E-mail : parksh7117@hanmail.net



품질과 신용의 기업
삼풍특수금속
Sampung Special Steel Co., Ltd.



스테인리스 자재 전문유통업체

(주)삼풍특수금속은 고객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으로 스테인리스 자재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종합 스테인리스 유통업체입니다.
고객여러분들께 보다 나은 서비스와 양질의 제품을 공급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30 (문래동4가) TEL. 02)2678-7061~2 FAX. 02)2671-6365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가정용 전자제품의 글로벌 리더



K-WON
K-WON ELECTRONICS

- Address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4산단5길 49
- TEL 041-552-8272
- FAX 041-552-7122
- Homepage www.k-won.com
- E-mail bskang@k-won.com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신리에 위치한 모교 평창캠퍼스 전경. 관악캠퍼스의 약 3분의 2 면적에 해당하는 2백78만㎡ 부지에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 국제농업기술대학원과 농업생명과학대학 실험목장이 들어섰다.

평창캠퍼스 준공...지역경제 활성화

동북아 바이오산업 허브 꿈꾼다

모교 소식

‘동북아 그린바이오 허브’를 목표로 추진됐던 모교 평창캠퍼스가 모교와 강원도 간 MOU가 체결된 지 10년 만에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다.

모교(총장 吳然天)는 지난 6월 12일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신리 평창캠퍼스 대강당에서 모교 관계자 및 지역주민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창캠퍼스 준공식을

개최했다.

관악캠퍼스의 약 3분의 2 면적에 해당하는 2백78만㎡ 부지에 모교 2천2백억원, 강원도 6백억원, 평창군 3백억원 등 총 3천1백억원이 투입된 평창캠퍼스에는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 국제농업기술대학원과 농업생명과학대학 실험목장이 들어섰다. 그밖에 23만㎡ 부지에 조성된 산학협력단지에 카길에그리퓨리나, 셀트리온 등 8개 기업체가 입주해 산학협력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오는 9월 개원 예정인 국제

농업기술대학원은 모교의 새로운 핵심 교육기관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곳은 농축산식품 분야의 기술교육과 더불어 농업·식품·환경 분야에 종사하는 글로벌 인재양성과 개발도상국 농업 분야 공무원, 유학생에게 한국의 선진 농업 기술을 전수하는 역할을 맡는다.

吳然天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이 캠퍼스에 동북아를 대표하는 그린바이오 분야의 첨단 학·연·산 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창조적 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崔文洵도지사는 축사에서 “강원도와 딱 맞는 학·연·산 최고의 시설을 갖춘 서울대 평창캠퍼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韓·中 청년들은 아시아의 미래”

中 시진핑 주석 강연

지난 7월 4일 모교 관악캠퍼스 글로벌공학교육센터 대강당에서 중국 시진핑(習近平)주석이 ‘한·중 우호 관계와 동북아 협력’에 대해 강연을 펼쳤다.

중국 주석이 국내에서 공개 강연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날 행사에는 모교 吳然天총장, 본회 徐廷和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및 재학생 5백여 명이 참석했다.

시진핑 주석은 이날 강연에서 “과거 일본 군국주의가 야만적인 침략을 감행했을 때 한국과 중국 국민들은 생과 사를 함께

했다”며 “앞으로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최대 동반자이자 수출입·해외투자 대상국, 여행 목적지이며 한국 역시 중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 투자 대상국”이라며 양국 관계를 설명했다.

이어 강연에 참석한 재학생들에게 “중·한 청년들은 나라의 미래이자 아시아의 미래”라며 “서로 배움을 갖고 양국 친선에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吳然天총장은 감사의 뜻으로 시진핑 주석에게 모교 동양화와 金炳宗교수의 미술작품 ‘서울대 정문’을 전달했다.

‘자랑스러운 동문상’ 3명 시상

공과대학

공과대학(학장 李建雨)은 지난 6월 25일 모교 관악캠퍼스 글로벌

공학교육센터 대강당에서 자랑스러운 동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의 자랑스러운 동문은 해외 활동 부문에 3M 辛學喆(기계공학73-79)수석부회장, 국내활동 부문에 대림산업 金東洙(토목공학75-79)사장과 삼성전기 崔致竣(금속공학77-81)사장이 선정됐다.

辛學喆수석부회장은 오랜 해외 사업을 통해 국내에 투자유치와 기업유치를 이끌어 왔으며 자랑스러운 한국인상(2007년), 국민포장(2009년) 등을 수상했다.

金東洙사장은 이순신대교, 새천년대교 등 기념비적인 교량을 건설해 특수교량의 원천기술을 확보, 국내 특수교량 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시키는 발판을 마련했다.

崔致竣사장은 졸업 후 세라믹 산업에 종사하며 일본 산업계가 독점하던 적층세라믹 콘텐서(MLCC) 사업을 진일보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香)

음악대학 학장에 金貴賢교수 임명

지난 6월 12일 모교 음악대학 학장에 기악과 金貴賢(기악69입)교수(사진)를 임명했다.



신임 김학장은 모교 기악과를 1년 수료한 후 필리핀여대에서 학·석사학위와 아티스트 디플로마(Artist Diploma)를 취득했다.

또 미국 미시간대에서 피아노 연주와 실내악 및 반주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지난 1982년 모교 기악과 교수로 부임해 후학 양성에 힘써오고 있다.

자연대학 학장에 金聖根교수 임명

지난 6월 21일 모교 자연과학대학 학장에 화학부 金聖根(화학76-80)교수(사진)를 임명했다.



신임 김학장은 모교 화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하버드대에서 물리학 석사학위와 화학물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1989년 모교 화학부 교수로 부임해 후학 양성에 힘써왔다.

成樂寅 차기 총장, 20일부터 임기 시작

제26대 모교 총장 최종 후보에 법과대학 법학부 成樂寅(행정69-73)교수가 선출됐다.

모교는 지난 6월 19일 2014년도 제6차 이사회를 열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에 따라 재적이사 과반수를 득표한 成교수를 총장 최종 후보자로 확정했다.

앞서 모교 총장추천위원회는

지난 4월 30일 成교수,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姜泰晋(섬유공학71-75)교수, 자연과학대학 물리천문학부 吳世正(물리71-75)교수를 총장 후보자로 이사회에 추천했으며, 지난 6월 13일 제5차 이사회에서 후보자 3인에 대해 면접을 실시했다.

成교수는 모교 법학과 졸업 후 1987년 프랑스 파리2대학에

서 헌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9년부터 모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해 왔으며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장,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成교수는 교육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7월 20일부터 4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丁相朝학장 이임·李元雨학장 취임

법과대학

법과대학은 지난 6월 17일 모교 관악캠퍼스 서암법학관 2층 아트리움에서 丁相朝 전임 학장과 李元雨 신임 학장의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吳然天총장, 邊昌九교육부총장, 任廷基기획부총장, 李俊植연구부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 및 본회 孫一根상임부회장, 金東建법대동창회장, 金鎭台국회의원 등 동문 1백여 명이 참석했다.

丁相朝 전임 학장은 이임사에서 “지난 2년간의 학장보직은 감동과 기쁨의 연속이었지만 때때로 겪어

야 했던 긴장과 고민의 순간들까지도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가슴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전한 뒤 “모교 법대는 신임 학장님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李元雨 신임 학장은 “서울대 법대 학장으로서 국민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를 담당하기 위해 교육, 연구, 사회봉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학문적 수월성’과 함께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실현할 것”이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어 金鍾甫(공법83-87)교무부학장, 李在珉(공법87-92)기획



丁相朝 前학장, 李元雨학장

부학장, 千熨燮(사법91-95)학생부학장 등 3명의 신임 부학장 소개가 진행됐다.

신임 李학장은 1986년 모교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독일 함부르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육군사관학교, 한림대, 한양대를 거쳐 지난 2005년 모교 법학부 교수로 부임해 후학 양성에 힘써오고 있다.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8월 22일까지 후보 추천

서울대인의 영예이자 귀감이 되는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후보를 추천받습니다. 24회째를 맞는 이 행사에 각계 동문들께서 모교 후배와 동문들에게 귀감이 되는 적격자를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는 8월 22일까지 모교 대외협력팀(전화: 880-9712, 팩스: 875-9712, 이메일: nayujoo@snu.ac.kr)으로 후보자의 인적사항과 업적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모교 '아시아 대학평가' 4위 기록

英 대학평가기관 THE 발표

모교가 영국 대학평가기관인 THE(The Times Higher Education)에서 실시한 '아시아 대학평가'에서 작년 8위에서 4단계 상승한 4위를 기록했다. 전체 1위는 도쿄대가 차지한 가운데 2위는 싱가포르국립대, 3위 홍콩대 순이었

으며, 국내에서는 모교에 이어 KAIST(8위)와 포스텍(10위)이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아시아 대학평가는 THE와 세계적인 연구 평가 기관인 톰슨 로이터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것으로 ▲교육환경(30%) ▲연

구역량(30%) ▲연구영향력(30%) ▲국제화(7.5%) ▲산업역량(2.5%) 등 5개 분야를 점수화해 순위를 매겼다.

모교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국제화 부문과 산업역량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순위가 향상된 것으로 평가했으며, 향후 글로벌 선도대학으로서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연구 및 국제화 분야에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갈 계획이다.



좌로부터 孫一根상임부회장, 풍산 孫仲明부사장·俞炳得감사·柳時旻부사장·崔漢明사장, 서희건설 李鳳官회장, 柳 津회장, 吳然天총장, 徐廷和회장, 鄭根植평의원회 의장, 邊昌九교육부총장, 李奉振약대 학장, 成老鉉연구처장, 朴鍾石노동조합위원장, 李慶桓총학생회장

노천강당 허물고 풍산마당 신축

52억 들어 친환경 문화공간으로

모교는 지난 6월 11일 관악캠퍼스 버들골 옛 노천강당 부지에서 풍산마당 신축사업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 모교 吳然天총장, 邊昌九교육부총장, 평의원회 鄭根植의장, 본회 徐廷和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孔大植부회장을 비롯해 풍산 柳 津(영문78-83)회장, 崔漢明(금속공학70-74)사장, 서희건설 李鳳官(AMP 33기)회장과 교내의 주요 인사 1백여 명이 참석했다.

吳然天총장은 “버들골 풍산마당

으로 모교의 새로운 친환경 예술·문화 소통 공간이 마련됐다”며 건립기금으로 52억원을 출연한 柳津회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柳 津회장은 “신축사업을 완수하면 이 곳에서 다양한 행사를 통해 졸업생과 재학생이 더불어 교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회 徐廷和회장은 버들골에 아름다운 무대 공간을 조성하기로 한 柳 津회장에게 감사를 전하며 “서울대 제1명소”를 건설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정성껏 만들어주시



앞줄 좌로부터 李俊植·金奎源·任志淳·朴聖會·吳然天·盧泰元·黃潤宰·任廷基교수, 뒷줄 좌로부터 金聖勳·鄭眞和·白盛喜·玄澤煥·劉載俊·成老鉉·朴鍾逸·洪起玄·朴贊郁·南益鉉교수, 李仙姬연구지원과장

2014년 창의선도 연구자

盧泰元·黃潤宰·朴鍾逸교수 선정

모교는 지난 6월 3일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에서 '2014년 창의선도 연구자' 선정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2014년 창의선도 연구자'에 물리전문화부 盧泰元(물리76-82)교수, 경제학부 黃潤宰(경제79-83)교수, 수리과학부 朴鍾逸(수학82-86)교수 등 3명이 선정됐다.

올해 선정된 연구자에게는 3년

동안 실험 분야 연구자 연간 2억6천만원, 이론 분야 연구자 연간 1억2천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또 해외 출장일수 확대와 책임 강의시간 일부 감면 등 추가적인 행정지원이 병행된다.

이 사업은 노벨상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 학술상 수상자를 배출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2012년 첫 창의선도연구자 8명을 선정해 현재까지 지원해오고 있다.

진양제약 崔允煥회장 10억원 쾌척

진양제약 崔允煥(약학56-60)회장이 지난 5월 31일 모교 약학대학 신약개발센터에 10억원을 기부했다.

이날 吳然天총장, 崔允煥동문을 비롯해 약학대학 李奉振학장, 진양제약 崔載巖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이 개최됐다. 崔동문은 10억원의 기금을 전달하며 약학대학 신약개발센터의 시설 확충에 필요한 여러 활동을 지원하는데 써달라는 뜻을 전했다.

崔동문은 모교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1971년 진양제약 전신인 진양약품공업사를 창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약학대학동창회 감사



崔允煥회장, 吳然天총장

를 역임했다.

崔동문은 “신약개발센터를 통해 약학대학이 신약개발 분야를 선도하는 세계 최정상급 대학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문대 朴漢濟명예교수 ‘武在 학술기금’ 1억원

모교 인문대학 동양사학과 朴漢濟(동양사학69-73)명예교수(사진)가 지난 5월 26일 모교에 학술기금으로 1억원을 기부했다.

朴漢濟교수가 조성한 ‘武在 중국 중세사 학술기금’은 모교 동양사학

과의 중국 중세사와유목사연구를 이끌어갈 인재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朴漢濟교수는 “부친의 교육에 대한 열정을 기리기 위해 부친의 함자인 武在라는 이름으로 기금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秀〉



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버들골 풍산마당은 2015년 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존 노천강당 부지에 2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객석과 무대, 대기실, 분장실 등을 갖춘 원형공연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반도체 장비 시장을 선도하는 그룹

에스에스오트론

코스닥으로 갈 열정적인 인재를 모집합니다

반도체 장비 설계 모집(기계설계과, 전자설계과 출신자 우대, R&D출신자 우대)
신규 프로젝트 아이디어 이메일(sgckimd@daum.net)로 접수

장비 프로그래머 00명 | 반도체 장비설계 00명 | 기계공학 00명 | 전자공학 00명

대표이사 신 계 철

본사/1공장/R&D :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 369번길 30(청천동)
TEL : 032-519-5490~1 FAX : 032-513-5490 Mobile : 010-8573-6108

www.ssotron.co.kr

♠ 더원결혼정보
17년 名家 행복출발의 새 이름

☎ 1588-38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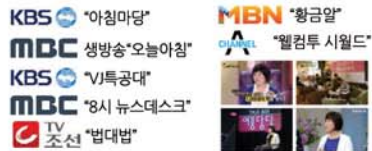
홍유진 커플매니저 / 더원결혼정보
한국대표 커플매니저 19년 경력 중매고수
1만건 상담 1,000쌍이상 성혼
KBS 아침마당, MBN 황금알 등 중매고수 출연

결혼중개업 등록번호: 서초 080013

대한민국 1등 결혼 약속 결혼, 더~원 해요

• 서울대 동문 및 동문 자녀분들께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TV속 중매고수들



17년 노하우 大賞

- 고객감동브랜드 大賞 3년 연속 (2014~2012) 결혼정보 1위
- 대한민국 올해를 빛낸 히트상품 (2012) 결혼정보 1위
- 고객사랑 브랜드 大賞 (2011) 결혼정보 1위
- 올해의 브랜드 大賞 (2010) 결혼정보 1위
- 한국을 빛낸 대표브랜드 大賞 (2010) 결혼정보 1위

와튼스쿨 MBA 동문
18만 대한민국 ROTC중앙회
KAIST 동문



창의적 사고, 정직한 서비스, 고객의 성공에 헌신하는 부동산 분양대행 전문 기업

Created of Highest Value

저희 이스트원 산업개발(주)는 부동산 분양대행, 임대대행, 입주관리를 중심업무로 각종 개발 사업 및 컨설팅 등 건설 서비스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개발대행 ▶ 분양대행 ▶ 임대대행 ▶ 부동산컨설팅



E.S.T ONE 이스트원산업개발(주) 대표이사 조미영

서울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6-11 현대슈퍼빌 E동 902호 TEL : 02-521-0545 FAX : 02-2055-0545
부산 |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1486-4 태웅빌딩 9F TEL : 051-642-6628 FAX : 051-642-6629



인제대학교와 백병원은 한가족입니다

교육부 교육역량강화사업 6년 연속 선정

(2013년 전국 재학생 1만명 이상 대학 중 학생 1인당 지원금 1위)

교육부 2단계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선정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35억원 내외 국고지원)



서울백병원

상계백병원

일산백병원

부산백병원

해운대백병원

김해캠퍼스: 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 197

부산캠퍼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로 75(부산백병원 내)

仁濟大學校
INJE UNIVERSITY

仁濟大學校白病院
INJE UNIVERSITY PAIK HOSPITAL

콩트 릴레이

헬멧

金 萬 玉(국문59-63)
소설가

어제 오후 구선아에게 택배로 온 물건이 수상했다. 이른바 안전모인 하얀 헬멧이었다.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를 탈 일도 없고 공사 현장에 갈 일도 없는, 일흔 살이 넘은 노인인 그녀에게 배달될 물건은 정말 아니었다.

확대경을 대고 보낸 분과 받는 분을 살살이 읽어본 다음에야 보낸 사람과 그 사람의 의도를 알 것 같았다.

그는 그녀 동네 내과의사이며 그와 그녀는 대학생이던 시절 신당동 어느 맥의 전임 가정교사와 후임 가정교사 관계로 알게 돼 동송동, 연건동, 함춘원, 창경궁, 비원을 돌아다니며 친구 관계를 유지하다가 어떤

고 위생 장갑을 갖고 다시 화장실로 들어갔죠. 관장을 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워낙 서투른 데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거 안 하면 죽는다 할 정도는 아니었나 봐요. 괴롭기는 했지만.”

그 대목에서 선아는 말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너무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무슨 의사 선생님이 환자의 하소연을 듣고 그렇게 웃어요?”

그가 웃음을 그치지 못하고 이야기를 계속하라는 뜻으로 손짓만 했다.

‘혹을 달고 있는 내 꼴이 상당히 우스운가 보다, 아무리 환자의 꼴이 우스워도 의

끓기 시작했다. 가스 불을 끄고 화장실로 뛰어갔다.

변기에 앉았는데 배가 아픈 게 마치 위경련이 일어난 것 같았다. 옛날 학생 때 한밤중에 자취방에서 위경련 때문에 지나가는 트럭을 얻어 타고 병원 응급실로 갔던 생각을 하며 내가 이러다 정신을 잃는 건 아닌가 걱정을 했다.

그런 걱정을 한 것까지는 기억이 났다.

“그런데 정말 정신을 잃었어요. 내가 타일 바닥에 고꾸라져 있는 거예요. 얼마 동안 엎어져 있었는지는 모르죠. 엉덩이는 든 채 이마를 타일 바닥에 대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다시 변기에 자리 잡고 나서야 시원하게 설사를 했지요. 그 난리를 부린 다음에야 배는 거짓말처럼 나아졌어요. 일을 다 보고 일어서서 거울을 봤더니 보시다시피 이마 뺨에 무지무지 큰 혹이 나 있더군요.”

그때쯤 그는 의사 체면에 차마 데굴데굴 구를 수는 없고 하여튼 있는 대로 폭소를 터뜨리고 있었다. 겨우 웃음을 끝내고 그가 그녀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다.

“그냥 댁에 가 보세요. 내가 지금 할 일은 없어요. 밤에 주무시다가 만일 머리가 몹시 아프거나 토하고 싶다면 큰 병원 응급실로 가세요.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앞으로 화장실 들어가실 때 헬멧

을 쓰는 수밖에 없겠네요. 몇 년 전에도 밤중에 화장실 가다가 의식을 잃고 머리를 다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몇 바늘을 꿰맸다더라.”

병원을 나올 때 접수대에 앉아있던 간호사가 예언한 대로 며칠 지난 지금 그녀의 이마 뺨의 혹은 거



일러스트레이터 蘇余廷(디자인09-13)

의 다 가라앉았지만 멍이 눈 아래로 내려와 오른쪽 얼굴에 커다란 지도가 그려져 있다.

‘그래 맞아. 화장실에 들어갈 때 헬멧을 쓰는 수밖에 없다더니 정말 헬멧을 선물로 보냈구나. 농담하는 줄 알았지.’

상자에서 헬멧을 꺼내 머리에 얹어보려는데 스펀지를 망으로 싸은 속 보호호 귀통이에 접은 종이 가 붙어있는 게 보였다. 편지였다.

선아씨.

오랜만에 써보는 편지입니다.

수없이 많은 편지가 오갔던 기억이 충동적으로 펜을 들게 했습니다.

며칠 전 선아 씨가 내 병원을 찾았을 때 내가 왜 그토록 웃음을 참지 못했는지 지금은 그 이유를 알게 됐는지요? 우리가 헤어지게 된 이유를 생각해봤다면 아마 지금쯤은 그날 내 웃음의 의미를 짐작했을 겁니다. 그 옛날 선아 씨가 나를 떠날 때 처음 그 이유를 물렸지만, 선아 씨의 짝막한 엽서를 받아 보고 나서야 알게 된 그때의 나처럼 말입니다.

신학기가 시작되고 며칠 지나지 않은 봄 날이었지요. 의과대학 구내에서 노닥거리

다가 갑자기 비원에나 한 번 가보자는 생각을 두 사람이 똑같이 하게 됐죠. 의과대학 정문을 나와 창경궁 쪽으로 길을 건너려는데 소변이 마렵더군요. 마침 거기 명륜동 방향으로 몇 발짝 떨어진 곳, 의과대학 담 아래에 공중화장실이 있었죠. 기억나나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원하게 일을 보고 나와서 선아 씨를 찾았지만 선아 씨가 보이지 않았어요. 길 건너 창경궁 정문 쪽에도, 명륜동 쪽에도, 원남동 로터리 쪽에도 선아 씨의 자취는 없었습니다. 세 방향을 미친 듯이 뛰어다니다 갑자기 같이 못 갈 일이 생겼으면 말이나 하고 가지, 나는 속으로 나무라며 학교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며칠 지난 후 선아 씨의 엽서를 받기까지는 제멋대로이고 변덕스럽고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게 선아 씨의 본래 모습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엽서의 내용은 아주 짧았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여자 친구에게 보이는 무신경한 남자와는 만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영원히.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상상이 될지 생각은 했나요?’

아이고 답소사.

아니라도 여자 친구와 그렇게 자주 만나는 일은 의과대학생인 내게는 사실 무리였습니다. 바쁘다 보니 다시 만나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죠.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던 겁니다.

그렇던 선아 씨가 며칠 전 내 병원에 와서 어떤 이야기를 했지요? 거리낌 없이 말입니다. 젊을 때 그렇게 깔끔한 체하고 자신의 치부를 보일까 봐 전전긍긍하던 사람이 말입니다. 둘이 마주앉아 이 세상 온갖 일을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내던 그 시절에 단 한 번도 화장실 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던 그 사람이 말입니다. 생리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방광은 관창은지 걱정스럽게 하던 그 여자가 변기에 앉아있는 자기의 모습을, 쪼그리고 앉아 관장하는 모습을 마음놓고 상상할 수 있게 시시콜콜 묘사하고 있으니 내가 웃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여기 헬멧을 하나 보냅니다. 화장실 입구에 걸어 두시고 번번이 머리에 쓰는 게 번거로우면 그걸 보고 건강에 유의하시라는 뜻입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아 참,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드디어 스스로 무장을 풀어버린 듯 편안하게 늙은 선아 씨의 모습이 좋습니다. 늙는다는 건 참 대단한 일입니다.

아이고 답소사.

비원으로 가자고 하던 그날 그가 공중변소로 들어가던 모습이 생생히 떠오른다. 거기 공중변소가 있는 줄도 모르고 뒤쫓아갔던 선아가 목격한 것은 남자들이 뒤통수를 보이며 준비하게 늘어서 일을 보는 장면이었다.

그녀는 마치 모욕을 당한 듯 나쁜놈, 나쁜놈 욕하며 의과대학 구내를 피해 원남동 로터리를 돌아 학교로 가던 일을 잊을 수 없다.

그때부터 그녀는 파렴치범들의 소굴인 양 의과대학을 피해 다녔다.

그가 기억한 대로 그녀는 누가 보는 데서 화장실을 가지 못했다. 화장실에 쪼그려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을 상상케 할까 봐,

구선아는 화장실 입구에 있는 그림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헬멧을 걸었다. 그 헬멧이 그녀를 보고 말하는 것 같다.

‘늙어가며 제발 염치머리 좀 쟁겨라.’

“

밤에 주무시다가 만일 머리가

몹시 아프거나 토하고 싶다면

큰 병원 응급실로 가세요.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앞으로 화장실 들어가실 때

헬멧을 쓰는 수밖에 없겠네요.

몇 년 전에도 밤중에 화장실 가다가

의식을 잃고 머리를 다친 적이 있었잖아요.

”

묘한 이유로 헤어진 사이였다.

선아씨가 십수 년 전 지금의 동네로 이사 와서 우연히 찾아간 병원, 전내과의 의사가 바로 그였다. 전 씨 성을 가진 내과의사가 그이라라고는 생각지도 않았고 그가 동네 의사가 되어 있는지도 그녀는 물론 몰랐다.

며칠 전 욕실 타일 바닥에 고꾸라져서 이마에 정구공만 한 혹이 생겼는데 딱히 어느 과 병원을 찾아가야 할지 알 수 없는 데다 거죽 상처보다 머릿속에 무슨 이상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 더 컸고, 병원을 탄을 시간도 돼서 쉬운 대로 동네 내과의사인 그를 찾아갔던 것이다.

오른쪽 눈썹 위에 정구공만 한 혹을 달고 들어간 그녀를 보고 그는 웃지 않았다. 그녀가 사고의 경위를 설명하기 시작할 때까지도 그는 웃지 않았다.

어쩌다가 그렇게 됐나 묻지도 않았는데 선아는 그를 마주하고 앉자마자 폭포처럼 사고의 경위를 입에서 쏟아내기 시작했다. 마침 대기하는 환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아침부터 변비가 심했어요. 너무 힘이 들어 이러다 혈압이 올라가 혈관이 터지는 것 아닌가 걱정될 정도였어요. 일단 주방으로 돌아가 올리브유를 허드레 그릇에 따르

사가 저렇게 웃으면 의사의 도리가 아니지’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그녀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여행 중일 때는 아무 데서나 변의를 느낄까 봐 변비약 먹는 것을 삼갔지만 집에 있을 때는 아무 때나 화장실로 들어가면 될 일이잖아, 힘들게 관장하느라 애쓰지 말고 약을 먹자고 생각했다.

과립으로 된 문제의 약을 거의 한 봉지 다 먹었다. 약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한나절 기다려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혹시나 이제 나저제나 하는데 소식은 없었다. 소통되지 않고 딱 막혀있는 괴로움은 극에 달했다.

참을 수 없어 죽기 살기로 나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하는 심정으로 땀벼들어 두 번을 더 관장했다. 드디어 세 번째 만에 성공했다.

그렇게 해서 변비는 해소됐지만 문제는 이미 먹어 둔 변비약이었다. 변비가 해소됐다고 먹은 약을 도로 꺼낼 수는 없었다.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늦은 오후에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뺏속이 불편하다 싶어 부리나케 집으로 돌아왔다. 그 총중에도 사 온 대구로 찌개를 안쳤다. 찌개가 끓기 시작하자 뺏속도 동시에

동 정

수 상

▲金南祚(국어교육47-51 숙명여대 명예교수)=오는 11월 1일 창원시 진해구민회관에서 제25회 김달진문학상(시부문) 수상.
▲辛永茂(법학63-67 前대한변호사협회장)=지난 6월 27일 제 5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훈.
▲李健茂(고고인류65-69 前국립중앙박물관장)=지난 6월 30일 한국박물관협회로부터 제 17회 자랑스러운 박물관인상(원로 부문) 수상.
▲南海鎮(종교72-76 경북 구미시장)=지난 6월 26일 제2회 대한민국 창조경제 CEO대상(창조혁신 부문) 수상.
▲白光宇(치의학72-78 아주대 교수)=지난 5월 27일 국내외 소외 청소년을 대상으로 치과진료 봉사를 펼쳐온 공로로 국민훈장 목련장 수훈.
▲車榮珠(의학74-80 중앙대 병원 의생명연구원장)=최근 대한혈액학회 학술대회에서 제17회 대한혈

액학회 학술상 수상.
▲崔然惠(독문75-79 한국철도공사 사장)=지난 6월 26일 제2회 대한민국 창조경제 CEO대상(사회책임경영 부문) 수상.
▲姜允求(의학75-81 울산대 교수)=지난 6월 20일 대한암학회와 공동제약이 공동 제정한 제3회 공동 암학술상 수상.
▲金香叔(약학77-81 모교 병원 약제부장)=지난 6월 26일 제 28회 세계마약 퇴치의 날 기념 행사에서 국무총리 표창 수상.
▲金印基(교육77-84 SBS 논설위원실장)=지난 7월 1일 한국언론인연합회로부터 제10회 한국잡언론인대상(선거방송 부문) 수상.
▲裴明福(불문79-83 중앙일보 논설위원)=지난 7월 1일 한국언론인연합회로부터 제10회 한국잡언론인대상(칼럼 부문) 수상.
▲鄭善珠(동물81-85 단국대 교수)=지난 6월 25일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여성생명과학상(학술진흥상) 수상.
▲河宗大(신문84-91 동아일보 편집장 부국장)=지난 7월 1일 한국언론인연합회로부터 제10회 한국잡언론인대상(평론 부

문) 수상.
▲姜三模(경제86-90 동국대 교수)=지난 6월 13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한국금융학회 정기총회에서 우수논문상 수상.
▲田炳坤(전기공학90-94 모교 컴퓨터공학부 교수)=지난 7월 14일 미국 마이크로 소프트웨어(MS) 연구소 학술상 수상.
▲曹圭珍(기계설계92-98 모교 기계항공공학부 교수)=지난 6월 4일 한국인 최초로 로봇자동화학회로부터 '젊은연구자상' 수상.
▲高甫錫(국악02-06 국립국악원 정악단 단원)=최근 제14회 명창 박희철 전국 국악대전 시상식에서 일반부 종합대상(대통령상) 수상.
▲文智妍(대학원05-07 모교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최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통증학회 학술대회에서 제1회 최우수 발표자상 수상.
▲金允燮(AMP 59기 유한양행 사장)=지난 6월 24일 한국경영인협회로부터 제13회 대한민국 최고 CEO대상 수상.
▲宋權永(AMP 65기 신일산업 부회장)=지난 6월 26일 제2회 대한민국 창조경제 CEO대상(품질경영 부문) 수상.

인 사

▲鄭鍾旭(외교59-65 前주중 대사·모교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지난 6월 10일 인천대 중학학술원 원장에 취임.
▲梁在鎬(치의학64-70 모교 치과보철학교실 명예교수)=최근 미국 고정성치과보철학회로부터 Life Member (종신회원)에 선임.
▲金樂薰(섬유공학70-74 동덕여대 교수)=지난 6월 16일 임기 4년의 동덕여대 제8대 총장에 선임.
▲李相天(기계공학70-74 前영남대 총장)=지난 6월 29일 임기 3년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초대 이사장에 선임.
▲裴基同(고고인류71-75 한양대 교수)=지난 6월 2일 프랑스에서 열린 국제박물관협의회 총회에서 국가위원회 의장에 선출.
▲鄭兆錫(조선공학71-75 성동조선해양 생산총괄본부 사장)=지난 6월 2일 성동조선해양대표이사 사장에 선임.
▲宋光鏞(교육72-76 前서울교육대 총장)=지난 6월 23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에 임명.

▲李廷是(지구과학교육72-76 前 CBS 사장)=지난 6월 2일 (주)서울문화사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
▲朴容晚(경영73-78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지난 6월 27일 국제상업회의소(ICC) 총회에서 집행위원에 선출.
▲金基善(원예74-78 모교 식물생산과학부 교수)=지난 5월 31일 한국원예학회 총회에서 회장에 취임.
▲許英燮(지리교육74-78 한국언론인연합회 이사·본보 논설위원)=최근 이데일리 편집보도국 논설위원실장에 선임.
▲張馨元(기약75-79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첼리스트)=지난 6월 23일~7월 3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8회 국제 청소년 차이콥스키 콩쿠르 첼로 부문 심사위원에 위촉.
▲盧東榮(의학75-81 모교 암병원장)=지난 6월 19~20일 열린 제40차 대한암학회 학술대회에서 이사장에 선출.
▲金弘範(경제76-80 경상대 교수)=지난 6월 13일 한국금융학회 총회에서 회장에 선임.

화제의 신간
7월 발간

우리 생활과 안전을 위한
ASTM
ASTM: For our Daily Life and Safety

안전

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지금,
ASTM이 안전한 사회로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전세계 150여 개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ASTM 표준규격.
우리의 생활과 안전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쉽고도 생생한 ASTM 이야기들을 소개합니다.

KITIS 산학연정보(주) 부설 기술연구소 지음 | 국판 201쪽 | 값 12,000원

“한국에서 ASTM에 대한 책이 발행되는 것을 축하 드립니다.
이 책은 ASTM International에서 인증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다 쉽게 ASTM 규격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 ASTM International 부사장 John Pace

모든 규격들의 기본인 **ASTM**, 우리 생활과 항상 함께 하고 있습니다.

Authorized Dealer in Korea
대표 홍영표 (국제대학원 GLP 21기)

▲申齊潤(경제77-81 금융위원회 위원장)=지난 6월 2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자금세탁방지국 제기구(FATF) 총회에서 부의장에 선출.

▲金卓玄(농업교육78-82 전삼성물산 개발사업부 상무)=최근 용인시 도시개발 및 시설물 관리를 관장하는 용인도시공사 사장에 취임.

▲余禎星(가정관리79-83 모교 생활과학대 학장)=지난 5월 30일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총회에서 회장에 취임.

▲河鍾遠(의학79-85 모교 의과학교실 교수)=최근 국내 최초로 세계이식학회(TTS) councilor에 선출.

▲秋武辰(의학80-86 메디서울이비인후과 원장)=지난 6월 18일 대한의사회 회장 보궐선거에서 제38대 회장에 당선.

▲李奉柱(사회복지81-85 모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최근 임기 1년의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회장에 선임.

▲安成奎(행대원82-86 前중앙SUNDAY 외교안보에디터)=지난 6월 3일 아산정책연구원 편집주간

에 선임.

▲趙允旋(외교84-88 前국회의원·여성가족부장관)=지난 6월 23일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임명.

▲李光雄(의학85-91 모교 의과학교실 교수)=지난 6월 1일 임기 2년의 모교 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에 선임.

행 사

▲姜信浩(의학46-52 동아쏘시오 그룹 회장·본회 고문)=최근 동아쏘시오그룹의 전문의약품 계열사인 동아ST가 자체 개발한 수퍼박테리아 타겟 항생제 '시벡스트로(Sivextro)'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신약 허가를 받음.

▲金在恩(교육50-54 이화여대 명예교수)=지난 5월 12일부터 6월 7일까지 서울 장충동 종이나라 박물관에서 '뿌리가 그리워서'를 주제로 제5회 아마추어 펜화전 개최.

▲宋庸植(법학51-55 한국지역정책연구원 이사장)=지난 6월 26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문화웅성위원회 金東虎위원장을 초청, '문화와 예술로 이루는 풍요

로운 삶'을 주제로 조찬포럼 개최.
▲李吉女(의학51-57 가천대 총장·가천길재단 회장·본회 부회장)=지난 6월 14일 전북 군산시 대야초등학교에서 가천이길여도서관 개관식 개최.

▲鄭相和(회화53-57 화가)=지난 7월 1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시간동 갤러리현대에서 단색화작품 45점으로 회고전 개최.

▲金新顯(회화58-62 한국미협 회원)=지난 6월 5~29일 강원도 인제군 내설악 예술인촌 공공미술관에서 동문 13명이 원로 작가 기획전 개최.

▲羅鍾一(정치59-63 한국시각장애인테니스연맹 회장)=지난 6월 27~28일 전북 우석대에서 제5회 한·중·일 시각장애인 테니스대회 개최.

▲朴興日(영어교육60-64 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명예이사장)=지난 6월 21일 명성교회에서 탈북민, 다문화가정 초청, 제26회 직장선교한국대회 개최.

▲李俊一(정치61-65 중앙대 명예교수)=지난 6월 30일 서울 강남시니어플라자 돌체아트홀에서 '6월의 마지막 날에 울리는

한국가곡'을 주제로 돌체마티네 콘서트 해설.

▲金東鎭(기악63-67 클라리네스트)=오는 7월 20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金容培(미학72-76 피아니스트)·郭貞善(기악90-94 바수니스트)·李倫定(기악90-94 오보이스트)·李碩竣(기악90-95 호른니스트)동문과 세종목관 챔버앙상블 정기연주회 개최.

▲金勳東(농학63-69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지난 6월 14일 성균관대 교정에서 2014년 희망나눔 1m 1원 자선 걷기대회 개최.

▲張明奉(행정63-72 국민대 명예교수·북한법연구회장)=지난 6월 26일 서울 뉴국제호텔에서 '북한의 보험제도 동향과 최근 보험법의 개정'을 주제로 월례발표회 개최.

▲吳斗凡(국어교육64-68 청주대 명예교수)=지난 6월 24~26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태평양아시아커뮤니케이션학회 학술대회에서 '한국의 최근 정치 과정에서의 모바일 미디어의 이용'이란 논문 발표.

▲張萬基(경대원66-68 인간개발연구원장)=지난 7월 3일 서울 롯데호텔에 메탈드룸에서 삼성경제연구소 李源德(경영70-75)상근고문을 초청, '사람중심의 국가정책과 기업경영'을 주제

로 조찬세미나 개최.

▲朴憲烈(화학공학67-71 국제원빙학회 회장)=최근 필리핀 라와사에서 열린 유네스코 주최 포럼 워크숍에서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사회를 위한 힐빙 접근방안'을 주제로 발표.

▲林玄鎭(사회67-71 모교 사회학과 교수·경실련 공동대표)=지난 6월 17일 경실련 강당에서 '시민사회에서 바라보는 새마을운동 ODA와 국제개발사업'을 주제로 토론회 개최.

▲曹洙哲(의학67-73 모교 정신과학교실 교수)=지난 6월 14일 모교 연건캠퍼스 의생명연구원에서 정년퇴임 기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강좌 개최.

▲崔敬鎭(의학68-74 신파루비노기과 원장·바리톤)=지난 6월 29일 대구 경일여고 우봉아트홀에서 두 번째 독창회 개최.

▲鄭泰成(무역69-73 플랜트포럼 회장)=지난 6월 24일 서울과 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통한 플랜트 수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창립기념 세미나 개최.

▲李長熙(대학원75졸 한국외대 교수·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지난 6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2014년 제1차



동문 전용상담 02.3445.2445
대표상담 1577-2050
www.nnoble.co.kr
편안한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특별한 VVIP를 위한 No.1 노블 결혼정보, 엔노블에서 서울대 동문 및 자녀 분들을 특별한 혜택으로 모십니다.

엔노블은 국내 최고의 8개 명문대 총동창회, 22개 전문직 단체·기업과 협력하여 5천명의 회원에게 특별한 결혼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품격과 수준에 맞는 배우자를 만나는 곳, 바로 엔/노/블 결혼정보회사입니다.



전문직/엘리트/노블레스 성혼전문

엔 노 블
결혼정보회사

국내 결혼중개업 신고번호 강남 080002

서울본사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50-16 상원빌딩 3-5층 부산지사 |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514 센텀리더스마크 4006호

평화통일비전포럼 개최.

▲鄭世濤(철학72-76 내일신문 주필·본보 논설위원)=지난 7월 1일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정치칼럼집 '새 정치 언제 오는가'(필맥刊) 출판기념회 개최.

▲金元坤(의학72-78 모교 흥부와 과학교실 교수)=최근 영화 속 흥부외과와 관련된 장면을 담은 '김원곤 교수의 영화 속 흥부외과 두 번째 이야기'(고려의학刊) 출간.

▲柳權永(의학72-78 모교 예방의학교실 교수)=지난 5월 28~29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아시아 코호트 컨소시엄에 초대 공동의장 및 집행위원으로 참석.

▲朴明潤(보대원74-76 민주평통 교육민족화합포럼 회장·관악회 이사)=지난 6월 14일 대전 동구청 회의실에서 '통일교육과 민족화합'을 주제로 올해 2분기

회의 개최.

▲權東一(금속공학75-79 모교 재료공학부 교수·법안전문연구소장)=지난 5월 30일 모교 관악캠퍼스글로벌공학교육센터에서 재난안전 스페셜 심포지엄 개최.

▲李東官(정치76-81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총장·본보 논설위원)=지난 6월 23일 (사)전국보일러설립협회와 국가 에너지 정책·친환경 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상호교류 협약 체결.

▲黃仁子(대학원78-82 국회의원)=지난 7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황인자의 男 다른 정치'(여성신문刊) 출판기념회 개최.

▲趙石(외교77-81 한국수력원자력 사장·한국원자력산업회의 회장)=지난 6월 27일 서울팔래스 호텔에서 한국원자력학회와 공동으로 조찬강연회 개최.

▲金敬喆(한대원83-88 한국교통연구원장)=지난 6월 19일 서울 서초구 The-K서울호텔에서 철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林聖勳(기약85-89 성신여대 겸임교수·바수니스트)=지난 7월 13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바수니스트 독주회 개최.

▲黃允映(기약85-89 백석대 교수·피아니스트)=지난 7월 8일 서울 금호아트홀에서 베토벤, 히나스테라, 쇼팽 등의 작품으로 피아노 독주회 개최.

▲김수연(기약86-90 피아니스트)=지난 7월 15일 서울 금호아트홀에서 라흐마니노프, 슈만 등의 작품으로 피아노 독주회 개최.

▲沈湖(대학원88-97 감사원 감사연구원장)=지난 6월 25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IT 감사의 역할과 도전과제'를 주제로 국제세미나 개최.

▲鄭受玟(기약89-93 피아니스트)=오는 7월 18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모차르트, 쇼팽, 무소그스키 등의 작품으로 피아노 독주회 개최.

▲이태정(기약93-97 바이올리니스트)=지난 7월 9일 서울 예술의전당 IBK 챔버홀에서 'Classical Passion V : 회고'를 주제로 바이올린 독주회 개최.

▲金俊希(기약96-00 숙명여대 강사·피아니스트)=지난 6월 28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토루 타케미즈, 베토벤, 쇼팽 등의 작품으로 피아노 독주회 개최.

▲박기범(기약98-02 춘천교대 교수·트럼피터)=오는 7월 1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오네게르, 토마시, 게디케 등의 작품으로 트럼펫 독주회 개최.

▲최영미(기약98-02 피아니스트)=지난 7월 13일 서울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이신우, 베토벤, 라흐마니노프 등의 작품으로 피아노 독주회 개최.

▲최유진(기약98-02 바이올리니스트)=지난 7월 13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드보르작, 코플랜드, 그리그 등의 작품

으로 '한 여름의 로맨스' 공연.
▲나윤아(기약02-06 바이올리니스트)=오는 7월 16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베토벤, 바르토크 등의 작품으로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개최.

▲金信愛(기약05-09 첼리스트)=오는 7월 20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베토벤, 쇼스타코비치, 카사도 등의 작품으로 귀국 첼로 독주회 개최.

▲황소진(기약05입 첼리스트)=지난 7월 7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베토벤, 브람스 등의 작품으로 귀국 첼로 독주회 개최.

▲金泰完(ACAD 44기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지난 5월 30일 충남 천안시 삼용동 삼거리공원에서 진주대첩의 영웅

金時敏장군 동상 제막식 개최.
▲安鎬元(HPM 6기 한국심성교육개발연구원장)=지난 6월 21일 월남참전고엽제전우회 전우들을 대상으로 '국가 안보와 건강한 삶을 위하여'를 주제로 특강.

▲金光勳(HPM 26기 한국소아당뇨인협회장)=지난 6월 21일 서울 롯데월드 가든스테이지에서 '함께해요! 소아당뇨 꿈과 희망을' 주제로 제5회 소아당뇨의 날 기념대축제 개최. 학교보건향상과 당뇨병 학생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한국보건교사회와 업무협약(MOU) 체결.

■ 삼가 명복을 빕니다 ■

- ▲呂石基(경성대학46졸 국제교류진흥회 이사장)=6월 12일 별세(92세)
- ▲李雄熙(섬유공학49-54 前국회의원)=6월 3일 별세(83세)
- ▲金蓮玉(지리교육55졸 前이화여대 교수)=6월 30일 별세(89세)
- ▲朱鍾元(건축53-57 모교 명예교수)=6월 27일 별세(82세)
- ▲趙性瑾(한대원61졸 前건설부 장관)=6월 29일 별세(92세)
- ▲申永澈(철학57-61 前한국능력협회장)=6월 22일 별세(77세)
- ▲林成森(치의학58-62 모교 명예교수)=6월 30일 별세(74세)
- ▲姜博光(화학공학60-66 前한국화학연구소장)=6월 3일 별세(73세)
- ▲魏容湜(경영68-72 前이수페타시스 감사)=6월 9일 별세(65세)
- ▲柳薰(조소73-77 경인교대 교수)=6월 30일 별세(60세)

‘동정’난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매달 24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동창회보에 게재됩니다.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416호
• 이메일 : snua1969@naver.com 또는 snua@korea.com
• 전화 : (02)886-2219 • 팩스 : (02)886-2218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창조경제 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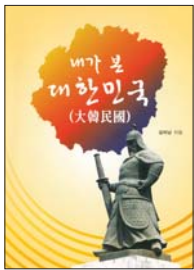


구미시
www.gumi.go.kr

신 간

■ 내가 본 대한민국

— 金許男 지음



국회의원, 이북5도 연합회장 등을 지낸 신라문화선양회 金許男(행정49-52) 이사장이 직접 체험한 대한민국의 성립과정과 현대 역사를 담은 책.

임시정부, 8·15 광복, 6·25전쟁 전후의 대한민국을 소개하며 李承晩대통령부터 李明博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의 업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도 담았다.

金동문은 이 책에서 과거 역사를 바로 알고 잊지 말아야 하며,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창조를 통해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문성정보刊·비매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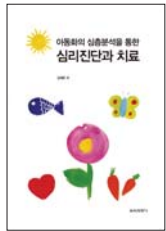
■ 예술이 어떻게 사람과 사회를 변화시키는가?

■ 아이들에게 예술을

■ 창의력, 문화력, 인격력 세 가지 힘을 키워라

■ 아동화의 심층분석을 통한 심리진단과 치료

— 金在恩 지음



최근 이화여대 심리학과 金在恩(교육50-54) 명예교수가 교육과 학사를 통해 4권의 책을 펴냈다.

‘예술이 어떻게 사람과 사회를...’은 예술이 일반 사회, 지역 공동체, 집단적 삶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치는가를 소개하고 있으며, ‘아이들에게 예술을’은 음악, 미술, 무용, 대중음악,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보이고 있는 21세기 교육에서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책이다.

‘창의력, 문화력, 인격력...’에는 세계와 역사를 넓게 보고 깊게 이해하는 안목을 지니면서 누가 봐도 신뢰할 수 있고, 정직하며,

자기가 맡은 책무를 성실하게 다하는 인품을 지닌 지도자로 키우는 방법을 담았으며, ‘아동화의 심층분석을...’은 미술교육과 심리진단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아동화에 대한 현장적, 임상적 적용 사례 등으로 엮었다. 〈교육과학사刊·값 각15,000원/15,000원/13,000원/20,000원〉

■ 아버지의 팽세

— 吳世鈞 지음



수필가 吳世鈞(의학59-65) 동문의 산문집.

이 책에는 43편의 수필과 2편의 소설이 실려 있다. 수필집 ‘등반이’를 上梓한 이후 3년 만에 펴낸 이번 책에는 특히 소설적 문체가 돋보이는 서사수필에 유독 강한 면모를 보이는 작가가 6·25전쟁을 겪은 세대만이 느끼고 쓸 수 있는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풀어내고 있다.

蘭臺 李應百선생이 ‘오세윤의 산문은 시와 산문의 자유자재로운 交織’이라고 평한 적이 있을 정도로 시적 이미지와 풍성한 이야기거리로 독자들을 끌어들이는 강한 흡인력이 있는 산문집이다. 〈수필과비평사刊·값13,000원〉

■ 웃은 사람이다

— 宋明見 지음



동덕여대 패션디자인학과 宋明見(농가정63-67) 명예교수가 ‘패션 인사이트’와 ‘아시아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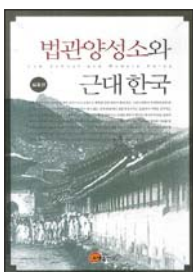
신문’에 발표했던 칼럼들을 모아 새롭게 엮은 책.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개인의 삶을 바꿔 놓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웃에 대한 가치를 말하고자 하며 웃이 주는 경이로움, 살아있는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

총 9개 파트로 구성돼 있으며 ‘패션의 위력’, ‘우리 역사 속의 패션’, ‘남성이 시작한 패션’, ‘돈과 패션’, ‘패션, 동서 문화의 융합’, ‘패션으로 사회와 소통’, ‘패션의 파도’, ‘웃 속의 과학’, ‘행복한 인생’의 주제로 나누어져 있다. 〈이담북스刊·값15,000원〉

■ 법관양성소와 근대 한국

— 金孝全 지음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인 동아대 金孝全(대학원70졸) 명예교수가 법관양성소와 근대 한국에 대해 다룬 이문서.



이 책은 전근대 국가 조선이 서양 문물과의 만남을 통해 근대 국가로 재탄생하게 되던 시기, 법률이 어떻게 성립됐는지, 그리고 그 법률 제도의 탄생과 성립이 근대 한국의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근대 한국의 전체적 조감도를 그렸다.

이 책에는 법관양성소의 설립 당초의 모습부터 정치적·사회적인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거듭하면서 ‘법학교’, ‘경성전수학교’, ‘경성 법학전문학교’ 등으로 이름이 바뀌어 가며 존속되다가 해방을 맞게 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소명출판刊·값61,000원〉

■ 나는 북한의 대변인

변호인 이었다

— 徐玉植 엮음



연합뉴스 편집국장을 지낸 언론중재위원회 徐玉植(동양사학69-73 본보 논설위원) 중재위원이 자신의 2010년 저서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말말말’을 보완, 수정한 책.

盧武鉉 前대통령의 반 헌법-반 대한민국 어록을 정리한 이 책에는 특히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총 2백46분의 盧武鉉-金正日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나타난 盧대통령의 NLL 포기, 북핵비호, 반미공조 발언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A4용지 총 1백3쪽에 달하는 대화록을 보면 盧武鉉대통령은 북한이 金大中정부시절인 1999년 서해 NLL 남쪽 대한민국의 영해안에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그들의 해상군사경계선, 그리고 우리의 NLL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만들자는 金正日の 제안에 동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도서출판 도리刊·값20,000원〉

■ 축구의 세계사

— 徐康穆 외 옮김



한신대 영어영문학과 徐康穆(영문78-82) 교수가 千芝玄(영문83-87)·李廷進(영문92-

공연

■ 조소연 피아노 독주회

— 7월 22일 예술의 전당



피아니스트 조소연(기악94-98) 동문(사진)이 7월 22일 오후 8시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개최한다.

독일 쾰른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조 동문은 이날 바흐-부조니의 샤콘느,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등을 열연한다. 〈공연문의:에인에술기획 586-0945〉

■ 김연진 첼로 독주회

— 7월 22일 예술의 전당



첼리스트 김연진(기악99-03) 동문(사진)이 7월 22일 오후 8시 서울 예술의 전당 IBK챔버홀에서 첼로 독주회를 갖는다.

미국 미시간주립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김 동문은 이날 피아졸라, 브람스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공연문의:에인에술기획 586-0945〉

99)동문과 함께 영국 출신의 스포츠전문 저널리스트인 데이비드 골드블라트의 작품을 우리말로 옮겼다.

‘공은 둥글다’는 부제의 이 책은 인류문화 전체를 대상으로 축구의 기원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축구와 관련된 사료들을 정리하고, 축구계 내부적인 사항들이 각 나라의 지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요소들과 얽혀든 과정과 결과를 분석했다. 〈실전문학사刊·값48,000원〉

■ 혁명 :

광활한 인간 정도전 ①②

— 金瑋桓 지음

소설가 金瑋桓(국문87-91)동문이 새롭게 기획한 ‘소설 조선왕조실록’의 첫 작품.

향후 金동문은 조선 5백년 전체를 60여 권의 소설로 재구성해 조선의 흥망성쇠를 파노라마처럼 펼

술기획 586-0945)

■ 李承權 클라리넷독주회

— 7월 24일 예술의 전당



클라리네스트 李承權(기악90-94) 동문(사진)이 7월 24일 오후 8시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클라리넷 독주회를 개최한다. 독일 쾰른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李동문은 현재 서울예고, 부산예고, 인제대, 서울클라리넷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공연문의:에인에술기획 586-0945〉

■ 홍인경 피아노 독주회

— 8월 6일 예술의 전당



피아니스트 홍인경(기악00-04) 동문(사진)이 8월 6일 오후 8시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연다.

미국 인디애나주립대에서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홍 동문은 이날 바흐, 쿠르탁, 바르토크, 슈만 등의 작품을 공연한다. 〈공연문의:에인에술기획 586-0945〉



쳐 보일 예정이다.

이 책은 그 첫 걸음으로 李成桂가 해주에서 낙마하는 순간부터 鄭夢周가 암살당하는 순간까지, 고려의 불꽃이 스러지고 조선의 동이 튼 18일의 광활하고 내밀한 비망록을 담고 있다.

저자는 일기체를 통한 비공식적 내면과 연월일 순으로 기록한 편년체를 통한 공식적 외면의 부딪침을 통해 鄭道傳이라는 인간이 원명 교체기라는 격동기와 어떻게 만나고 엇갈렸는지 그려냈다. 깊고 진지한 고뇌가 담긴 일기 속에서 혁명가가 어떻게 단련되는지 엿볼 수 있다. 〈민음사刊·값 각권 12,500원〉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http://www.kcgu.ac.kr>



총장 이혜성
사대 국어과 62 졸

University of Virginia 교육학 박사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前 한국청소년상담원장

석·박사 학위과정

- 상담학일반 • 철학상담 • 문학상담
- 아동청소년상담 • 부부가족상담
- 고령자상담 • 산업조직상담

부설 상담센터

- 개인상담/집단상담/심리검사
- 인문상담 교육프로그램
- 인턴·레지던트 교육과정
- 보건복지부 <바우처사업>

평생교육원 상담학 아카데미

- 일반인과 전문상담인을 위한 비학위과정
- 매년 3월/9월 개강
- 고용노동부 <교육비 환급과정> 추진

부설 15세상담 연구소

- 청소년 프로그램 十五通活 개발/실시
- 강사교육·교사연수

자아실현을 통해 창의적이고 성숙한
전문상담인을 양성하는 상담전문대학원



상담의 학제적 접근을 통한 인문상담학 구축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66 (서초동) Tel: 02)584-6851 Fax: 02)584-6858 | 상담센터: 02)584-6855 | 상담학아카데미: 02)584-6863 | 15세상담연구소: 02)522-7315



붉은 햇살, 맑은 공기 먹고 자란 청정 자연의 명품 - 청송 사과·청송 고추



청송에 굴뚝 연기 나는 공장이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울울창창한 푸른 숲과 맑은 공기, 그리고 붉은 햇살만이
청송의 대지를 가득 적십니다.

청송의 청정자연 속에서 순박한 농민들의 땀을 먹고 자랐습니다.
농식품파워브랜드대전 대통령상에 빛나는 청송사과,
청양고추의 유래가 된 청송고추.

건강을 지키는 자연을 담았습니다.



구입문의 : 청송사과유통공사 054-873-3200, 874-4040



사람중심 더큰수원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수원
수원은 가장 특별한 도시입니다

빛 · 부패 · 범죄걱정이 없는 도시,
일자리 · 골목경제 · 중소기업이 늘어나는 도시,
안전 · 경제 · 환경 · 교통 · 교육 · 문화 · 자치를 누리는 도시.
수원은 가장 특별한 도시입니다.



모교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로

평생회비 : 2014년 5월 납부자 / 연회비 : 이사(2014. 3. 4~6. 17) · 일반(2014. 3. 4~6. 17)

원내 숫자 : 입학년도(미확인시 졸업년도) - 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회장 단

(이사)	△강구태 공대78
△강덕재 HPM29	△강효순 공대68
△고용희 AMP73	△권소영 의대95
△권오정 IFP3	△권중환 SGS25
△금종해 자연76	△김덕호 사대73
△김동철 AIC8	△김범수 법대82
△김상근 법대86	△김상규 HPM31
△김승중 수의69	△김영길 공대60
△김용원 법대59	△김은호 GLP25
△김중희 ALP13	△김춘호 SPAR2
△김호영 AMFR30	△김희숙 사대68
△노환진 공대81	△노희천 공대94
△박민규大院83	△박병진 사회83
△박상언 공대71	△박수안 공대72
△박순황 AIP46	△박영춘 AMP66
△박용길 문리66	△박재성 공대94
△박종래 공대81	△박형기 공대82
△방통일 음대72	△배기운 법대71
△배명철 사회74	△배수향 생활90
△석광덕 치대67	△석현수 공대72
△성기상 공대62	△성봉경 법대78
△송남훈 수의64	△송호순 AFP7
△신 평 법대74	△신병호 사회73
△신준순 FIP2	△신중호 공대79
△신철준 HPM28	△신혜경 간호68
△심명석 IFP3	△심차순 미대57
△심현철 문리68	△안계동 環院84
△양희준 FIP8	△오규창 농대77
△오민석 공대83	△우중수 공대74
△윤미량 行院88	△윤미여 간호76
△윤병무 ALP11	△윤석용 농대74
△윤원재 의대95	△이동찬 ACPM8
△이두정 AIP48	△이상권 AMP74
△이상미 음대84	△이성준 공대83
△이용걸 사회76	△이용태 문리63
△이원수 사회81	△이인선 AIP45
△이정휘 ACPM9	△이진환 ASP1
△이찬식 공대75	△이택주 문리66
△이흥락 법대83	△이희운 약대6
△임병용 법대80	△장덕흠 AIP49
△장동한 HPM29	△장시원 상대70
△장주인 ASP23	△장필순 AMP10
△전영희 사회82	△전용우 AMP65
△정교순 ALP18	△정도출 법대68
△정상일 의대88	△정일채 經院67
△정재호 ACAD61	△정종섭 법대77
△정필동 ABKI1	△정현봉 AMP74
△조영진 치대82	△조영호 치대65
△조태용 사회75	△주섭일 문리57
△주언채 HPM30	△주진희 미대74
△채희철 음대83	△천인수 공대69
△최광선 공대72	△최낙삼 공대77
△최순규 BCP4	△최승구 문리67
△최종찬 ACPM8	△한창우 자연75
△함형태 경영86	△홍정현 농대88
△황광민 의대78	△황규엽 의대72
△황진호 법대82	△황찬호 의대80

〈일반〉 △경민호 SGS²⁴

△고대만 사대82	△고용일 공대62
△공덕수 AMP55	△권오규 공대03
△김 민 음대60	△김계명 농대61
△김귀숙 약대79	△김세호 농대87
△김수연 인문00	△김장근 사회88
△김재완 자연77	△김주엽 자연90
△김진수 농대62	△김진욱 공대99
△김현대 AFP13	△문재원 법대07
△박성달 법대56	△박승철 의대59
△박일현 문리69	△박준영 의대63
△박지훈 자연06	△방옥근 保院85
△백준현 인문84	△신중훈 大院90
△신해연 사대93	△안정훈 공대89
△오세범 공대00	△우정옥 AMP37
△유선주 상대59	△이완수 공대61
△이전평 약대88	△이종상 공대67
△이중석 사대02	△이훈용 의대72
△임경순 사대83	△임시선 공대64
△장성준 의대05	△전일우 경영97
△전희배 GLP25	△정금식 법대81
△정병철 문리67	△정재열 大院97
△정종욱 MBA11	△진원두 법대94
△최영수 AMP76	△최종옥 사대54
△최창욱 ABKI3	△최하식 상대60
△하 룬 자연07	△황선기 사회87
△황선미 자연91	

이 사

◆인문대 △강정일⁷¹ △강현주⁹³
△고재학⁸² △김광현⁷⁶ △김동철⁷⁸
△김정호⁹⁰ △김정환⁸¹ △김주현⁹⁰
△김태현⁷⁵ △류은숙⁰⁴ △문신원⁷²
△문선호⁸⁷ △박수현⁸³ △박진우⁹³
△박태영⁷⁴ △박희일⁹¹ △방한빈⁷⁷
△변성수⁸⁴ △변우식⁷⁷ △서노원⁸¹
△서형배⁷⁴ △소대봉⁸⁴ △손예철⁶⁹
△송기국⁷⁶ △신원식⁷³ △오성민⁹⁷
△유 식⁷⁹ △윤대근⁸¹ △윤상익⁸¹
△윤상필⁸⁴ △이동립⁸⁸ △이선일⁷⁹
△이성영⁸² △이영인⁷⁷ △이용기⁸⁶
△이재학⁸² △이준호⁹¹ △이한복⁷²
△임운봉⁶⁴ △임채희⁸⁴ △장대철⁸⁴
△정용모⁸³ △정진기⁸⁶ △조용일⁷⁷
△조용호⁸⁷ △조희태⁸³ △진재기⁸³
△최연혜⁷⁵ △한보희⁷⁷ △홍성범⁸⁷
△황대순⁷⁸

◆ **사회대** △강성두⁷⁸ △강철원⁷⁶
△곽대환⁸¹ △권태훈⁸⁷ △김 영⁷⁹
△김광병⁸² △김규수⁸⁷ △김기식⁸⁵
△김기준⁷⁷ △김동선⁷⁶ △김민환⁷⁹
△김소용⁷⁹ △김승희⁸⁷ △김연광⁸⁰
△김은진⁹³ △김정환⁹⁰ △김준하⁷¹
△김형규⁸⁵ △김호일⁸¹ △김희철⁸¹
△남기섭⁷⁶ △노택선⁷⁹ △류성록⁸²
△문준석⁹² △민병덕⁹⁰ △박 철⁸¹
△박재진⁸⁹ △박재하⁷⁷ △박종국⁷³
△박종철⁹⁰ △박주대⁸⁵ △박준서⁸⁰
△박찬욱⁷² △박희택⁹⁶ △방창식⁸³
△배현기⁸⁴ △서명국⁸⁴ △서영준⁶⁹
△성은식⁷⁶ △신영호⁸⁸ △안승운⁸¹
△온기선⁷⁷ △원영준⁹⁰ △유은상⁷⁸
△윤용순⁹² △이동현⁸² △이목희⁷¹

△이상헌⁸² △이석준⁷⁸ △이재택⁷³
 △이재열⁸⁰ △이종선⁸⁷ △이창수⁸⁵
 △임희택⁷⁸ △장철호⁸³ △장홍근⁸¹
 △전상현⁹¹ △전주현⁹⁰ △정동철⁸⁰
 △정봉교⁷² △정상철⁷⁸ △정석구⁷⁷
 △정성효⁸¹ △정예모⁷⁸ △정응근⁸⁷
 △정종제⁸² △정종호⁸³ △정지만⁷⁸
 △정현민⁸¹ △제민호⁸² △조동환⁸²
 △주병기⁸⁹ △주순식⁷³ △주진혁⁷⁷
 △주홍민⁹¹ △최범수⁷⁵ △최영선⁷⁷
 △최익순⁷³ △표희선⁷⁶ △한병송⁸⁵
 △홍기현⁷⁶ △홍승식⁸⁵

◆자연대 △강경관⁷⁰ △강봉근⁸⁰
△기준학⁸¹ △김규중⁷² △김희웅⁸³
△노동진⁸⁹ △박영준⁹² △박용철⁷²
△박태욱⁹⁵ △석희웅⁸² △송세안⁷⁵
△안명환⁸³ △원유덕⁸¹ △유상준⁷⁶
△윤용하⁸⁴ △이근희⁸² △이상구⁸¹
△이수용⁷⁵ △이영우⁷³ △이은용⁷²
△이재철⁷¹ △이준영⁸¹ △이충렬⁰⁰
△이현식⁷³ △임만중⁸⁷ △정철희⁷⁵
△정현미⁸² △조완제⁸⁴ △조재린⁹⁰
△진민⁷⁸ △최승주⁷² △최진우⁷⁵
△홍광현⁷⁷ △황도근⁸⁴ △황열수⁸⁶

◆간호대 △김혜경⁸⁸ △박선애⁷³
△성송현⁷⁴ △신순애⁸³ △이인옥⁷⁴
△전귀남⁸³ △조동란⁶⁶ △허 영⁷⁴

◆경명대 △강태웅⁷⁹ △강한수⁸⁷
 △구지일⁸⁶ △김근수⁷⁷ △김석호⁷⁷
 △김성천⁸⁴ △김연경⁷⁹ △김영렬⁷⁹
 △김영모⁷⁹ △김학식⁷⁶ △남수현⁸⁷
 △노정의⁷² △노진만⁸³ △박기환⁶⁹
 △박찬호⁸³ △변재진⁷² △서동규⁸⁴
 △서정호⁸⁸ △서정희⁷⁸ △성기만⁸⁴
 △송덕호⁷⁸ △오태일⁷³ △유병인⁶⁹
 △유태우⁷⁹ △윤주환⁸⁵ △이상수⁷³
 △이상윤⁹³ △이성엽⁸⁹ △이윤종⁸⁰
 △이재욱⁸⁸ △이준규⁹¹ △이현우⁸³
 △전선규⁷⁸ △전용주⁸⁶ △정호정⁹⁴
 △조성문⁸⁴ △조표훈⁹⁵ △최용일⁸⁹
 △최종욱⁸⁹ △허두석⁹³

◆공대 △강경태⁸⁴ △강신이⁷³
△강희신⁸⁵ △강희태⁵⁸ △고동일⁹³
△공철규⁵⁷ △곽성용⁷⁷ △곽수태⁷⁸
△구자령⁸² △구현모⁷² △권경준⁹⁵
△권상익⁹¹ △김 한⁷⁴ △김 훈⁷¹
△김경호⁷⁵ △김광무⁸³ △김광옥⁵⁶
△김광욱⁶² △김광원⁸⁵ △김기남⁷³
△김남호⁷⁰ △김동규⁷² △김동성⁷³
△김동진⁶⁸ △김동진⁸³ △김명수⁷³
△김병규⁷⁶ △김봉렬⁷⁶ △김석홍⁸¹
△김성도⁷⁵ △김성은⁸⁹ △김세준⁸³
△김영수⁵⁸ △김영신⁸⁹ △김영중⁷⁶
△김영학⁹⁰ △김영호⁷⁸ △김용수⁷¹
△김원배⁵⁵ △김원수⁶¹ △김인동⁸⁰
△김재수⁷⁷ △김재승⁷² △김정선⁸¹
△김정인⁹⁴ △김정철⁵⁵ △김정훈⁰³
△김종윤⁹³ △김주홍⁴⁷ △김지상⁸¹
△김지수⁷⁶ △김진기⁸⁷ △김진영⁶⁸
△김창락⁷⁸ △김철호⁸⁵ △김태문⁷⁰
△김학세⁶⁵ △김현준⁸⁵ △김희령⁸⁶
△남보우⁷⁶ △남상률⁷⁰ △남승운⁸²
△남장수⁶⁴ △노철균⁷⁰ △류무열⁷⁷

△목희수70 △문석형50 △문승현79
 △문창환75 △민경식50 △민경식67
 △민병진82 △박경수76 △박경호73
 △박동식68 △박보엽71 △박성봉87
 △박상서83 △박영길78 △박인근75
 △박인오83 △박정진84 △박종규68
 △박종렬71 △박종희96 △박진수70
 △박찬석92 △박해룡72 △박현길75
 △박현철85 △박화규77 △박효대76
 △박흥철51 △박희경73 △방병선79
 △배성한02 △배영호63 △백명철71
 △백문서85 △백삼엽86 △백승욱58
 △백호봉70 △변동필75 △변수전85
 △서강석78 △서광벽73 △서남규69
 △서동식81 △서동원70 △서문호68
 △서병수82 △서완수69 △선병수81
 △선우준76 △설재훈74 △설재훈92
 △성기초51 △소도섭70 △손경업65
 △손태원72 △송광호84 △송배원75
 △송병륜05 △송창영68 △신경철76
 △신동성64 △신동식51 △신영수74
 △신윤승74 △신현욱92 △신희승71
 △심동석84 △안기식83 △안동만66
 △안상순65 △안상형69 △안영구65
 △안용호88 △안종찬69 △양 갑68
 △양기정67 △양재근79 △여동욱86
 △여인갑64 △여인선75 △여태승82
 △염사연64 △오경식75 △오창석69
 △우진태71 △원종환52 △유영제70
 △유준민63 △윤경목01 △윤극노62
 △윤맹현66 △윤석구53 △윤세한79
 △이강우79 △이경환83 △이계수63
 △이계환62 △이교성77 △이금식59
 △이기재93 △이덕락78 △이덕원75
 △이동욱79 △이동춘53 △이동희85
 △이병철80 △이병하69 △이봉주67
 △이봉환68 △이상선84 △이상호66
 △이수남69 △이승욱91 △이용경60
 △이원도59 △이원표72 △이윤표77
 △이인원69 △이재운63 △이재은61
 △이정국62 △이정만70 △이정일61
 △이제훈84 △이종국87 △이종길87
 △이종남73 △이준성88 △이중재64
 △이중호70 △이지원81 △이진우80
 △이찬홍74 △이창호55 △이춘성71
 △이태순79 △이태현95 △이현석94
 △이현순69 △이희영76 △임민수66
 △임채용89 △장민석92 △장상배82
 △장세일59 △장영원66 △장창선87
 △정기로82 △정수전66 △정옥희52
 △정태영75 △정태현73 △정한중77
 △정호규80 △조국영92 △조찬현84
 △주정훈81 △차근오76 △최상현77
 △최영석84 △최영식47 △최완철69
 △최재권74 △최재평92 △최종욱69
 △최준민77 △최현수85 △최홍영69
 △하규성76 △한상흥85 △한재성79
 △허성윤90 △허욱렬70 △허준호86
 △현정훈76 △홍광표54 △홍성일66
 △황철71 △황인석68 △황일인59
 △황정대88 △황택수73

◆농대 △강인석⁸¹ △강인섭⁷³
△강철기⁷⁶ △고덕구⁷⁵ △곽지상⁵²

△권오준⁶⁵ △권재홍⁸³ △금대섭⁷³
△김경하⁷¹ △김동태⁶² △김병운⁶⁹
△김상도⁶⁹ △김승로⁰¹ △김양재⁷⁸
△김영진⁵³ △김용관⁸⁵ △김윤조⁸⁹
△김일종⁶⁹ △김종언⁹¹ △김준영⁸⁴
△김진구⁸² △김대동⁸⁰ △김태수⁶⁶
△김현구⁵⁰ △김현태⁸⁴ △김희성⁶¹
△노규식⁷⁶ △명인종⁷³ △목진만⁰²
△문동준⁷⁰ △민경택⁸⁸ △박경호⁸⁴
△박동규⁵⁶ △박명영⁸⁹ △박상용⁸³
△박수철⁸² △박승우⁶⁷ △박옥임⁷⁰
△박종주⁶⁶ △박창용⁶⁵ △박한수⁸²
△방화원⁸⁰ △배정길⁶¹ △서승덕⁵⁵
△서원호⁷⁴ △서정근⁵⁹ △선우정원⁸¹
△성낙근⁷⁹ △송경민⁷⁵ △송경호⁵⁶
△송기덕⁵⁵ △송한용⁸³ △신용석⁶¹
△심상후⁸¹ △안수구⁷³ △여강연⁸⁰
△연장식⁸⁴ △염익환⁷⁸ △염태영⁸⁰
△오박철⁶¹ △왕진무⁶⁰ △유 석⁵⁹
△유문일⁶⁶ △유세현⁷⁹ △유용률⁶⁶
△이규승⁶⁷ △이기은⁸³ △이덕남⁶⁹
△이무근⁶⁰ △이상용⁶¹ △이석한⁸²
△이성수⁶⁷ △이세표⁵⁵ △이승겸⁷⁵
△이연숙⁶⁵ △이원덕⁸⁰ △이원재⁸⁰
△이임영⁸¹ △이전제⁷⁰ △이종현⁸⁰
△이진희⁸¹ △이혜근⁶⁷ △장승호⁸¹
△정복현⁷⁴ △정세진⁷⁰ △정일성⁶²
△정필수⁶⁶ △정해각⁵⁵ △조규태⁷⁴
△조수경⁷² △조영래⁸² △조진환⁵⁰
△조호연⁷⁷ △지원철⁷³ △최동하⁷¹
△최락현⁶¹ △최병원⁷⁷ △최봉영⁷⁵
△최원규⁶⁴ △태웅문⁸² △한용규⁹⁹
△한재용⁸⁰ △함종환⁶³ △허 명⁷⁸
△허길행⁶⁵ △홍동선⁵⁶ △홍순명⁶⁸
△홍행홍⁶² △형인업⁷⁴

◆문리대 △강승겸⁶² △곽영찬⁷⁰
△권태승⁵⁵ △김 명⁶⁷ △김기주⁵⁴
△김대성⁶¹ △김동선⁵⁷ △김수진⁵⁷
△김영일⁶² △김옥남⁵² △김용성⁶²
△김윤철⁶⁷ △김홍규⁶⁹ △나기웅⁷⁰
△남기흥⁶⁷ △남진순⁶⁸ △문무홍⁶⁷
△민영기⁵⁷ △박동수⁴⁶ △박영배⁶⁵
△박용안⁵⁷ △박정무⁵⁹ △박정운⁷⁰
△배성근⁵⁶ △변 형⁶¹ △안소연⁶⁵
△양이훈⁶⁵ △양철주⁵⁹ △엄경일⁶⁴
△염영진⁶³ △오영일⁶¹ △오원영⁵⁹
△오재희⁵³ △유보일⁶⁰ △유정열⁵²
△윤호미⁶¹ △이근수⁷¹ △이상열⁷¹
△이상직⁶⁶ △이성우⁶³ △이영래⁶⁰
△이영록⁶⁶ △이용대⁵³ △이원홍⁵²
△이정운⁵⁴ △이창희⁵⁴ △이형구⁵⁹
△인태오⁵⁷ △임병석⁵⁴ △임형택⁶²
△장홍주⁷⁰ △정 광⁶² △조영수⁶⁴
△조창화⁵⁷ △지경홍⁶⁰ △최 웅⁶⁹
△최병서⁷¹ △최정도⁶² △추호경⁶⁵
△하영식⁵⁸ △한영우⁵⁷ △한창호⁶⁵
△한태길⁶⁹ △한필순⁵⁷ △홍종호⁶²
△황경호⁵⁴ △황병선⁶⁴ △황종철⁶⁷
◆미대 △강신욱⁸⁶ △강웅기⁹⁴
△김 정⁷⁰ △김선미⁸⁸ △김성희⁸²
△김용진⁷⁹ △나명희⁶⁶ △박재호⁵⁹
△송근영⁶⁶ △우병택⁷⁶ △윤선이⁸⁷
△윤육진⁶⁴ △이진민⁸³ △임홍순⁴⁸
△장 훈⁹⁹ △전민숙⁷⁴ △정병구⁶⁶
△함혜란⁸³ △허 훈⁵⁶ △홍현중⁰⁴
◆법대 △강민수⁶⁵ △강상진⁸⁷
△강승구⁸⁰ △강승준⁸⁵ △강영균⁸⁴
△강형중⁸⁴ △강희철⁸¹ △고현철⁶⁵
△곽종훈⁷¹ △구남수⁸¹ △구재균⁷⁶
△구충서⁷¹ △권영삼⁷⁵ △권은민⁸²
△기우종⁸⁵ △김 신⁷⁶ △김건식⁷³

△김경태63 △김계인64 △김광훈79
△김권택63 △김규복69 △김동훈77
△김병국66 △김봉학70 △김상균77
△김상일83 △김석재88 △김선욱63
△김성길60 △김세중82 △김수목83
△김승진57 △김승호62 △김영광84
△김영기66 △김영수79 △김영우56
△김영욱72 △김영일60 △김영재57
△김영태84 △김완섭65 △김용환60
△김유동86 △김윤기75 △김응열59
△김이수72 △김익하60 △김재정82
△김정일97 △김정후57 △김제식77
△김종구59 △김종률81 △김종일52
△김종호80 △김종훈83 △김진관71
△김진만60 △김진우52 △김진환67
△김창복51 △김창희82 △김춘호82
△김태훈68 △김현산54 △김형렬83
△김형선57 △김형수77 △김호영72
△김호철85 △김흥면72 △김희수80
△김희주84 △도정환83 △류수열75
△류시열57 △목영준74 △문대성85
△문상일84 △문영길55 △민수광60
△민일영74 △박 만70 △박강희83
△박광권81 △박교선82 △박기태76
△박병규55 △박부찬56 △박상기56
△박상길82 △박성귀71 △박성진84
△박순백66 △박승문78 △박영렬75
△박영수52 △박용상63 △박원진51
△박일환69 △박재태81 △박준서58
△박해봉83 △박현순73 △박형남78
△박환승83 △박희문73 △배 도53

△배용찬86 △백덕열67 △서정석77
△서창희82 △성패문60 △손기식68
△송달룡78 △송석봉87 △송쌍중61
△송영철80 △송혜영86 △신성철65
△신영철72 △신원도87 △신은철81
△신현욱66 △신현일77 △신호철61
△신흥기82 △신희택71 △심우영59
△안건희78 △안경환66 △안병우66
△안병익88 △안성희66 △안재영70
△안창환84 △양인석75 △양희영52
△여상원77 △여상훈75 △염용표92
△오대혁84 △오병주75 △오시열75
△오연근76 △오정면86 △오천석76
△유 훈49 △유병규83 △유원규71
△유정호62 △윤보옥66 △윤우진71
△윤재기63 △윤재열50 △윤준원67
△윤형한66 △윤호일61 △윤홍근79
△은현호87 △이건리81 △이건중72
△이관표75 △이광만81 △이광범77
△이규홍63 △이기배71 △이기웅50
△이대우67 △이덕모71 △이동명75
△이동훈68 △이문재65 △이민재72
△이병호86 △이상환78 △이상훈74
△이선우74 △이성호76 △이순기03
△이영욱52 △이우근67 △이원호61
△이인상60 △이재성78 △이재창56
△이재철70 △이재환75 △이정락58
△이정민88 △이정훈89 △이종상54
△이종수57 △이중훈78 △이진배65
△이진우78 △이철승78 △이춘성74
△이태운68 △이태창61 △이해진86

△이형진81 △임도빈65 △임종훈73
△임한흠73 △장성원99 △장준철67
△전명호86 △정경택70 △정경호94
△정광우61 △정대권75 △정대철62
△정덕흥68 △정문화59 △정영조55
△정용달81 △정준영85 △정태용95
△제차룡60 △조동주53 △조영삼81
△조윤희86 △조재건82 △조정규68
△조정욱90 △조준연85 △조중환65
△조지만90 △조태원75 △조해근78
△조해현81 △주성민69 △주우식78
△지성우66 △진창수86 △차문호88
△채 윤78 △채주엽91 △최강호67
△최귀인56 △최기선64 △최상목82
△최상엽56 △최석원52 △최성우81
△최신석59 △최연희64 △최우식75
△한상태56 △한주상63 △한준엽69
△함영엽57 △허영범88 △현병무52
△현순도66 △홍경식70 △홍광식67
△홍성무73 △홍성필89 △홍진태52
△황봉환73 △황성일56 △황영선55
△황이연55 △황찬현72 △황철규83
◆시대 △강순규76 △강하구68
△고문주76 △고영선73 △곽봉조70
△구성희55 △권원태74 △권재술66
△김경자71 △김남조47 △김두정73
△김봉근60 △김선주76 △김수연87
△김승관73 △김억관67 △김영애64
△김영조74 △김영화76 △김용근65
△김윤미94 △김점술82 △김종문72
△김종원61 △김종찬87 △김종화68

△김준환61 △김지은92 △김진원56
△김찬근54 △김천수58 △김충언58
△김학전59 △김효진85 △나동진66
△류근찬68 △문제세71 △민흥기59
△박병기81 △박봉상59 △박상필76
△박영미75 △박영태67 △박완규80
△박원근89 △박익두64 △박재공62
△박제동70 △박종현70 △박찬구56
△박화엽64 △방재욱68 △백승권53
△변재익61 △석용진77 △성기훈71
△성낙돈74 △손영목60 △송영아88
△송장섭69 △송재숙71 △신차균68
△신찬우48 △신하영58 △심창만84
△안광화63 △안승룡75 △안창섭61
△엄영주66 △여태철84 △오두범64
△온기수70 △왕문용66 △우성기74
△유승연73 △유영목77 △유환목78
△유희임68 △윤규태65 △윤석원68
△윤용섭61 △윤익모62 △이기준67
△이노연58 △이득우74 △이봉수74
△이상요74 △이선준48 △이상현56
△이원강57 △이은희92 △이재원70
△이재희74 △이종덕60 △이종승65
△이주연79 △이준동60 △이진구71
△이창득71 △이형운71 △이홍자70
△이환희54 △임찬희78 △임효숙81
△장보성86 △장종산82 △전인수75
△정귀생58 △정동춘80 △정봉문91
△정상권72 △정연만79 △정용길77
△정응근63 △정지오73 △정찬모66
△조경오75 △최병주56 △최안기70
△최요섭71 △최운식63 △최준명60
△최희유68 △하상기74 △한도연49
△한상현68 △홍석영85 △홍인수74
◆상대 △강승구65 △곽윤광60
△구선희56 △구영보69 △구정희57
△권영식66 △권혁승53 △권희구56
△권희택56 △김경모61 △김기중57
△김기희66 △김녀명63 △김대중66
△김동식61 △김만경53 △김병식68
△김상희66 △김성규57 △김승훈68
△김윤일66 △김창달53 △김창수68
△김창진58 △김철영70 △김형만52
△문성환71 △문영도50 △박 간68
△박종민64 △박진화55 △박태하58
△박해룡58 △서영택58 △서종석71
△손상모53 △송필호68 △신정철63
△엄수명61 △오강욱56 △우찬목55
△유원영57 △유장희59 △유진무62
△유희선65 △윤우진61 △윤종현44
△이대우72 △이동혁65 △이승웅60
△이용성56 △이용진68 △이인덕67
△이재규65 △이종윤64 △임종두61
△장덕신71 △장병기64 △전문준64
△전창수57 △정주호65 △정태욱62
△조원구64 △조창제57 △최경식59
△최남식59 △최도성70 △최명규46
△최종인61 △최행주66 △표계영58
△표학길66 △한병무59 △한용석55
◆생활대 △김명경83 △김성은83
△김운정93 △김정주56 △박복순70
△엄윤경78 △여의주82 △이성란83
△이용호78 △조혜옥59 △최영선71
◆수의대 △김계방61 △김남훈87
△김성수64 △김운수74 △김한태78
△니중극54 △남궁선57 △박성권74
△박재학77 △박전교74 △방극승64
△배상호64 △서강문82 △송치용83
△신래섭56 △신현덕80 △예재길72
△오화근88 △윤화중54 △이 완82
△이 준62 △이강남66 △이범준78

△이상인82 △이성모78 △이수창61
△조은제80 △최병조76 △최운주00
△하태은80
◆약대 △김경찬91 △김상조54
△김수경57 △김영택61 △김장호65
△김재근59 △김재환68 △김정기69
△김진형88 △김태근71 △김효중71
△맹민영56 △맹호영81 △박대창69
△박승규59 △박은유83 △박태동77
△배영일60 △손인자69 △손정식73
△신화용46 △심현주85 △안병주69
△안원준80 △원희목73 △유태숙72
△이상희62 △이용연72 △장석윤79
△조경호94 △주학유70 △지현석56
△최광조68 △최규진90 △최규팔70
△최근욱74 △최선식64 △최수영79
△최진근77 △한방숙66 △허 상58
◆음대 △강낙영67 △김금수76
△김영숙85 △김종필81 △김지윤93
△김현이82 △김혜중69 △남지현85
△문경해78 △민미란73 △박정자60
△박희덕77 △변우석90 △서유석89
△서윤진94 △신상호74 △유신선79
△윤기숙82 △윤명순79 △윤이근74
△윤제상78 △이경숙50 △이기원76
△이명희68 △이문경76 △이방실92
△이영심78 △이영자56 △이용일57
△이재숙59 △이한돈65 △이혜정81
△임정원63 △정혜선81 △조창연66
△홍승현81 △황영기82 △황응준87
◆의대 △강권철69 △강대희81
△강세윤59 △강승백82 △고영채74
△고종현74 △고형일64 △국형철76
△김민석84 △김근식53 △김규환76
△김기락68 △김기범92 △김동윤76
△김동은52 △김미숙84 △김병철85
△김소연74 △김영근43 △김영태84
△김예원68 △김용봉70 △김종환50
△김진조45 △김창욱72 △김한수82
△김현우64 △남상민85 △노문진90
△노총희70 △맹국영68 △목정은60
△문석배97 △박건우92 △박노현78
△박성근89 △박소배72 △박수영05
△박영관58 △박이태72 △박주배68
△박지영82 △박춘식72 △박호진72
△손근찬52 △손기섭51 △손봉기73
△신기철75 △신종근87 △신주호81
△심성은91 △안용태69 △양세원78
△양솔문00 △양승오75 △양영식66
△오병희71 △오승환56 △유경상64
△유성렬71 △유세화65 △유현덕77
△윤용범66 △이 행80 △이규훈85
△이대규53 △이동규77 △이봉화75
△이부영52 △이상근73 △이순형56
△이영돈73 △이윤호68 △이의돈61
△이의용72 △이종복79 △이진호70
△이진호76 △이호창95 △임미향97
△임승문74 △임준희93 △임태환70
△장수진06 △전영훈74 △정 민75
△정 석04 △정규환96 △정동철54
△정범영94 △정유조85 △정을삼60
△조남혁70 △조상현80 △진홍용70
△최동수54 △최세준53 △최혜령03
△추광철60 △한경일84 △한규섭72
△한병채58 △함돈일84 △허준평70
△홍정룡69 △홍창익45 △홍순욱72
◆치대 △강민섭81 △김 욱88
△김 일51 △김각근71 △김강주79
△김기현56 △김병찬69 △김봉호56
△김윤이73 △김응만81 △김인수82
△김장현77 △김종우66 △김종철71



사람을 제일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 인터비즈시스템

스물다섯 인터비즈 뜨거운 젊음으로 도약하다!

SINCE 1989

사람과 기업의 가치를 잇는 인재관리전문기업 인터비즈가 창립 25주년을 맞았습니다.
젊은 청년의 패기와 열정으로 대한민국 비즈니스의 새 역사를 열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웃소싱 전문기업 - 인터비즈시스템
HR 아웃소싱 서비스 | 근로자 파견 서비스 | 헤드헌팅 서비스 | 채용대행 서비스 www.inter-biz.co.kr

(주)인터비즈시스템 150-740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6층(여의도동) 본사(관리) 02-799-7900 (영업)02-799-7979

△김종훈73 △김지호59 △김태의60
△김학선80 △김홍석57 △김효은82
△니병선69 △문진석76 △민병화74
△박기성55 △박동욱67 △박상규03
△박상균66 △박용한78 △박우찬68
△박찬유65 △방수남62 △배현성64
△백성기71 △백위현66 △서명우83
△서성구74 △서운석72 △손일수71
△송재용82 △신동인76 △안건모83
△안순찬83 △연태호81 △유태영63
△윤봉윤79 △윤학영62 △이경우71
△이규철64 △이상대70 △이상재75
△이상표77 △이승종69 △이윤상59
△이의석06 △이장훈57 △이재용73
△이재호80 △이정민92 △이준규66
△이진걸77 △이창우75 △이정룡70
△이택훈71 △이현석82 △이혜자77
△임병채80 △임성수60 △임용준65
△임종호82 △장도훈70 △장명우83
△정원용52 △정재영70 △정형남62
△조경석79 △조광현70 △조형작64
△최낙준72 △최성근65 △한광수72
△한우석76 △한충일78 △허재식93
△황 준63

◆대학원 △강경규81 △관병남81
△권부섭81 △김광윤73 △김기혁85
△김동식85 △김병주85 △김삼수87
△김상호79 △김정준86 △김현택82
△남재국88 △박동준80 △박복만66
△서수원89 △선흥규86 △손정모83
△손충기79 △윤민재90 △이광재78
△이동필81 △이상엽86 △이석연81
△이시운81 △이양곤83 △이종규88
△이혁구86 △이희성81 △전용기82
△정성렬85 △조재연82 △최계운82
△최윤정04 △토토쿠니01 △황인자78
△황철용96

◆경대원 △김정태68 △박원봉68
△이철우69 △조현국73 △최원영93

◆교대원 △송함섭64

◆보대원 △김진한87 △박남용02
△박원길65 △서은하96 △유승진99
△유용래85 △유희준00 △윤지선04
△이운현89 △정진택84 △조경복92
△조경중68 △허인남80 △황석천80

◆사대원 △석용진65

◆신대원 △김우룡71 △김태문71
△유일상72 △유일연72

◆행대원 △강훈철80 △공병영90
△곽대훈78 △구기성89 △권기성77
△김동수80 △김익영68 △노일숙79
△문희갑66 △박병련82 △박우순76
△반금환70 △신호현84 △염준호12
△오태영85 △이원기67 △이주석84
△이체필83 △장성호85 △장완호95
△정시영93 △정여철74 △정창훈05
△정현욱88 △조현재86 △최상철64
△최석식83

◆현대원 △김수철76 △박동전87
△박상락84 △박종일84 △박형석74
△윤종식89 △이평재73

◆AMP △강민희51 △고시목8
△고은봉33 △공희식72 △김기용28
△김도현72 △김봉규20 △김수환15
△김영만65 △김익현72 △김진섭9
△노태식64 △류래경69 △마음득75
△문만빈75 △박건현70 △박영대1
△박영서14 △박원규50 △박인상28
△박정욱72 △백복인71 △서호근60
△서효중3 △석 강61 △손태원75
△송학성63 △신지윤66 △심계진36

△안종표36 △양희강74 △염병만71
△오도환72 △유대운37 △유병운23
△유시수25 △유진석32 △유춘용31
△유해준40 △육신학57 △윤승철73
△윤용암66 △윤종수23 △윤종호48
△이내흔25 △이순구63 △이윤로50
△이현구52 △임성규73 △전용배57
△전중규73 △정영대48 △정용동73
△정원태73 △정환진47 △조봉구19
△조영철74 △조인수74 △최세필54
△최재선9 △최종원73 △한형수47
△허택행2 △홍승표68 △황외영59

◆AIP △강석대15 △권오열22
△김경환13 △김극배48 △김대원48
△김서규40 △김성길7 △김성화46
△김용태30 △김유미46 △김유태44
△김윤종31 △김준석46 △김창진48
△김태환31 △김학규26 △김후근17
△나재암7 △노완구18 △박남규47
△박병철41 △박상수42 △박양수46
△박양신20 △박영욱38 △박정오16
△박희재1 △백종한47 △송태진22
△엄성욱47 △유길상9 △유영준47
△윤명수30 △윤백중4 △윤재영36
△이기선47 △이기태2 △이덕영23
△이동훈20 △이명호20 △이병호28
△이상원20 △이상희15 △이석우49
△이석원36 △이은택6 △이의현20
△이재서11 △이창섭29 △전영하28
△정창현20 △정하결45 △정희용27
△조성환21 △조창식45 △주영현12
△지해환49 △진영환9 △최익선25
△한옥문45 △허 열41 △허정수46
△홍두선49

◆ACAD △고세일32 △권영호60
△권오형73 △김광수68 △김무수74
△김성현40 △김시호73 △김용삼73
△김윤세50 △김점수74 △김중해71
△김창식45 △노재우16 △노희식38
△민병운56 △석동연53 △손재권73
△신동만11 △신태용73 △심재금73
△안창돈76 △이강국63 △이달화24
△이상종73 △이상철33 △이연수72
△이영희57 △이종간55 △이종우63
△임충규45 △장진영62 △전병순42
△정영만71 △정진문65 △조건장49
△조주태14 △조흥규26 △최수근51
△최형태68 △한동수73 △황갑주48
△황계윤73 △황상모66

◆ABP △강구현35 △김성일15
△김수동32 △김정택23 △김현식20
△박정호38 △박준명12 △박하용39
△배덕재41 △배영운31 △서규찬36
△서재선40 △서준용40 △손기석39
△심형보16 △유영희39 △윤해진29
△이무성38 △이상락4 △이상래24
△이수남39 △이현구39 △임경상9
△정공훈22

◆SGS △강중원20 △권오신5
△김광두3 △김기문26 △김수근2
△김승규7 △김호영2 △김희철12
△박정호5 △박종인5 △신경근27
△원훈순15 △이강용28 △이권의14
△이라원6 △임경보11 △조백일6
△조영규28 △조용기19 △허성호26
△허충화14

◆APC △권상태10 △권혁면18
△김명섭3 △박동근18 △박동기16
△배병현11 △신현용17 △안 기15
△안무경4 △이용배5 △조규정17
△조성구7 △조주현18 △최상현18

△하정호8 △한길호4 △함춘조2
◆HPM △고영선26 △권기진8
△김강희11 △김광화9 △김동량27
△김명중6 △김병수9 △김성훈21
△김주필4 △김찬익30 △김현수2
△박중엽29 △박진희28 △배영봉14
△복성철30 △성현제7 △심춘보26
△안영미28 △안호원6 △이석기14
△이재우23 △이정희12 △이태수6
△이한구10 △임동호10 △임신규30
△장성호6 △장해영28 △전성혁13
△정성민28 △정지문14 △정희순14
△조이만29 △주범로2 △최낙원16
△최병용9 △최종환10 △최진호19
△하경호27 △하병철28 △하우형29
△한훈섭10

◆AMPP △김명남5 △김종민4
△김종배12 △남정명1 △방석관1
△서영교11 △이상철5 △이생기12
△이용재13 △이인근2 △이종만5
△이태규13 △전제원12 △정중수2
△조현국12 △진노석4 △홍석우9
△홍창식12

◆AIC △곽복동28 △김동현25
△김민철31 △김석영25 △김영배2
△문명연6 △박 훈12 △박명진33
△신원식32 △신재식33 △안희주26
△왕진원11 △이강록13 △이경의5
△이상석24 △이응대35 △이인기11
△이일로1 △이종대18 △정동욱33
△정홍채20 △조정구8 △최인환34

◆AFB △권병환10 △김관택10
△김병관12 △김성하12 △김정민2
△김호운4 △류형우9 △마수진12
△문창동12 △박 율9 △박희성12
△방윤석10 △방주득11 △양근영10
△이영두9 △이용택11 △정일진10
△정중구12

◆AMPFRI △강림구30 △강정목9
△김태호22 △김복엽23 △김재원17
△배명섭9 △백두철9 △서강인30
△윤명희30 △이기종1 △장봉열30
△장석철5 △천병기19 △한기영3

◆ACPMF △권정훈8 △김금용9
△김선규2 △김수용7 △두강현10
△민평기4 △박세원9 △박정규10
△박현일8 △박흥석6 △안익성8
△이성만10 △이정현5 △이종현10
△정주영10 △진성의4

◆FIP △고영수2 △김성하6
△김시천9 △박성환9 △윤호석8
△이인화5 △정연삼9 △황국현4

◆GLP △강대철25 △강병섭21
△구운관27 △권갑현18 △김규영18
△김용직15 △김종길19 △김중대20
△김창송21 △김호진5 △노길환26
△박양숙22 △박영식18 △방관수23
△서재섭24 △손양석25 △손영수3
△신명진13 △오범석20 △유시현7
△윤재호14 △이기호26 △이석형12
△이성호13 △이영우27 △이우영24
△이원욱11 △이흥순12 △장성수24
△전광일27 △전진규16 △정용기14
△조복기27 △차기민16 △최도승24
△최화선12 △한충권20 △허영무23
△홍영화16

◆ALP △권동환2 △김 오16
△김경일3 △김민성16 △김수연16
△김영진16 △김태유15 △김해연15
△남기현15 △문정림18 △백종각12
△오도영1 △유득상17 △이광수15

△임영철5 △장덕근16 △허영호4
△허충화18

◆SPARC △구능본21 △권영범11
△김 건8 △김달수1 △김미철23
△김미아23 △김성택20 △김태근6
△김해명13 △박대현20 △박승식6
△방용수16 △손태일13 △이혜경23
△최광중6 △최만범21 △허미연20
△홍순우15 △황인옥21

◆AFP △김성주11 △김창목9
△박희석9 △양오승11 △이창식6
△정일채8 △진수형9 △하현희5

◆ASP △김상근24 △김용두25
△김원환25 △김정원25 △김종완23
△김태희12 △김희창24 △박상호16
△서우택23 △성순경10 △전귀상24
△정연호25 △진영호20

◆IFP △강래영9 △권영용6
△김대하1 △김문학5 △김상호3
△김옥희4 △노일호9 △박주완6
△손성기6 △이기원5 △이성건2
△이승득1 △조용우4 △진은민6

◆BCP △강예규7 △김영순10
△김한기3 △박상원10 △박정수3
△박종우12 △신철수9 △오영호2
△지용환10 △최성원2 △최수일1
△황해령7

◆ABKI △강정은3 △김진목1
△김진학2 △배정현1 △여명권3
△이현성1 △최인숙3 △최창목3
△현상섭2

◆KFL △박인아12 △백미혜11

일 반

◆인문대 △김 영88 △김민지01
△김소희02 △김시곤80 △김치하84
△노민혜08 △문병우87 △박상연07
△박창수05 △서영민02 △성관정06
△성기혁06 △윤상현91 △이승재79
△이승철75 △이주영05 △장영덕78
△전소익74 △최기용74 △최종윤03
△편일범86 △홍범식83 △황진상98
△황효성02

◆사회대 △고용준08 △권용신86
△김강이07 △김덕수84 △김병규05
△김봉준00 △나규철84 △문 철11
△문지혜06 △박덕환72 △박순일00
△박종현83 △서인석92 △손종원81
△송상종78 △신상조86 △양길용95
△이광오73 △이세준82 △이승훈02
△이찬복98 △정국환73 △정삼봉73
△정용진98 △정주성03 △정지용98
△조인우06 △최병철93 △최창희03
△홍민영96

◆자연대 △권혁준06 △김광우00
△김기표00 △김남우03 △김대환02
△김병수74 △김영석85 △김용근74
△김운호02 △김지수03 △김진주11
△김한결11 △노정현04 △박영일02
△박용진05 △박유나96 △박제근84
△서영만72 △손승민08 △신재혁07
△윤상은07 △윤희식73 △이동영01
△이슬기전04 △이지희84 △이희승84
△정용준01 △정인권90 △조동원73
△조영길74 △조현진01

◆간호대 △고혜명65 △권오겸56
△김기희65 △김재희84 △박현자63
△신은숙65 △이선미06 △이옥의11
△조익준04 △최정옥55 △최진이07
△한영자66 △황문정81

◆경영대 △고두형01 △권용기75
△김운호88 △김원구78 △김주연03
△김환국81 △서학수82 △안대훈04
△오지환77 △윤병은72 △윤종빈68
△이난샘99 △임정오68 △조성훈79
△허승호82 △황동철75

◆공대 △강경탁52 △강병철92
△강영식64 △강환구75 △고근희54
△고순민98 △고재경06 △곽동수53
△구영호72 △구정모93 △구형모79
△권기동63 △권두섭57 △권봉일69
△권오석60 △김계천53 △김광은63
△김광일56 △김구면94 △김남길61
△김명준03 △김법근02 △김병남73
△김병훈98 △김상원94 △김성권97
△김세진47 △김용백61 △김유간86
△김유희57 △김익석84 △김인석55
△김인용74 △김재수91 △김재형51
△김정수67 △김정혁00 △김제욱73
△김종순54 △김주영55 △김주찬75
△김주하01 △김창현63 △김철순53
△김철호72 △김태영86 △김태문55
△김현수82 △김현중70 △김형민04
△김혜수64 △김홍근76 △남광문61
△남궁석52 △남기동43 △노승규82
△노충래62 △노홍조48 △리종민05
△류철호67 △문혜진11 △민철기56
△박국진05 △박기철72 △박노상57
△박대철72 △박민서79 △박범우06
△박상덕71 △박상재84 △박상진69
△박석현67 △박용성95 △박용승54
△박이관58 △박일재78 △박종인97
△박종태61 △박주태79 △박찬민57
△박찬용06 △박철립59 △박현우07
△박형순60 △배종서82 △배준일98
△백남식68 △백덕현53 △백선욱62
△백영방55 △백인경08 △서두석71
△서민우00 △서세현65 △성영환58
△성운준05 △성정환03 △성효용03
△손계욱70 △손승래54 △손연규75
△송기선03 △송상현67 △송수영51
△송슬지05 △송영찬06 △송정우08
△송종은95 △신동수73 △신일진67
△신현식50 △신효순57 △심용기53
△안석기03 △안재목87 △안준규01
△안홍삼63 △양동률50 △양민영63
△양희진02 △엄성희04 △오열근57
△우종민97 △원제혁58 △유상희58
△유슬기11 △유일상57 △윤 백78
△이갑연83 △이강우61 △이경태53
△이규생57 △이규재44 △이규화68
△이근수54 △이근환05 △이기설47
△이동욱06 △이명식49 △이병수77
△이상경68 △이상순67 △이성기58
△이성영63 △이소영06 △이승욱56
△이요한07 △이원구65 △이원복50
△이윤식55 △이인호82 △이인희56
△이재범01 △이정훈06 △이제근56
△이창복56 △이창주97 △이태경10
△이혁재66 △이현웅01 △이현행70
△이희발72 △임동조71 △임용택55
△임현용69 △임형준04 △장동근55
△장현봉76 △전홍기69 △정명진04
△정상열72 △정상진68 △정석현51
△정소연11 △정연수05 △정용근85
△정인수73 △정진경48 △정태증48
△정해길65 △조동기93 △조문제73
△조민욱02 △조승제56 △조영근67
△조용준02 △조장하57 △조재준02
△조정호65 △조형태00 △주석재75
△주용용72 △주종용06 △지덕선60

△지석배93 △차건호93 △차석배63
△최 근02 △최광선84 △최동일06
△최시정55 △최신영03 △최종민01
△최효병59 △최희정61 △히종민05
△한용희06 △한정원11 △한정빈63
△한창석68 △한현철05 △허광엽05
△현 철05 △현덕훈78 △홍성범56
△홍성재52 △홍진표59 △황인준95
△황해룡74
◆농대 △강광희57 △고일웅61
△김두만52 △김문규49 △김문수54
△김삼식53 △김석동72 △김시철83
△김영상58 △김원문67 △김원훈49
△김윤배61 △김이기80 △김인철01
△김재영94 △김재인58 △김재인62
△김재학53 △김재형88 △김정빈61
△김태규61 △김택구63 △김학기65
△김형림03 △김효석03 △남승우79
△박 호59 △박동우70 △박선영62
△박순석50 △박윤근55 △박장렬53
△박주원04 △박준관04 △박진화57
△박창용55 △박창호58 △박천서49
△박형훈55 △백응현64 △변양석59
△변영숙70 △서완수58 △손광훈62
△송영달55 △송종관52 △신경준76
△신상혁56 △신재인56 △심상태02
△심상우57 △안승요51 △안창조63
△양승엽52 △오수영59 △오정행60
△오흥석50 △우창명66 △원인희73
△유기성56 △유병윤54 △유성구03
△윤동면65 △윤오섭48 △윤인화55
△이경용53 △이두황75 △이병전55
△이병현59 △이시규73 △이원희50
△이을룡53 △이춘녕36 △이태윤03
△이택구55 △이현우51 △이홍석52
△임용섭87 △임철홍11 △장세중66
△장운용51 △전석수62 △전석억55
△전현기64 △정진욱56 △정태원57
△정환근79 △조준기54 △천기길57
△최나리07 △최무재53 △최상균51
△최영주75 △하맹종58 △한기학52
△한상익57 △한정수51 △한찬택52
△한해룡55 △허근영87 △허정수60
△현재선44 △홍순흥58 △홍의표58
△황용진56 △황재순70
◆문리대 △강낙중56 △강명순59
△강석명56 △강세원56 △강영원70
△고석진57 △고인석56 △구자흥63
△권익식67 △김규완57 △김기근69
△김기현52 △김남진59 △김동일58
△김석산58 △김신환52 △김영성62
△김영식64 △김영웅63 △김용웅64
△김유석55 △김일송63 △김정숙58
△김정식62 △김종엽61 △김진석59
△김형련66 △김형효58 △김호정49
△김홍철53 △나미례65 △남기진65
△박용배59 △박정일61 △박희주53
△방재환66 △배인하59 △백영일67
△백재현48 △변광수65 △서병현53
△서서창53 △성만용53 △성명제54
△소광희53 △송길상48 △신장호59
△신현식56 △신효순61 △심수보62
△양영수67 △오인환58 △오현승65
△온준철64 △온종렬72 △우창웅52
△원용우60 △원인기66 △유구영59
△윤영탁60 △윤용진59 △윤하정47
△윤홍로62 △이 강56 △이광열71
△이규일53 △이근남68 △이범주64
△이병재60 △이상근59 △이성화58
△이양길60 △이연희51 △이영식51
△이영훈65 △이재술57 △이재승59

△이재현56 △이정숙57 △이종규56
△임채호58 △장영태64 △정기인60
△정봉택50 △정서구65 △정영채62
△조 흥66 △조남학61 △전병희56
△최건수66 △최규봉53 △최명근57
△최봉석69 △최선록59 △최승일61
△최연균67 △최영길58 △최인일68
△최정호52 △한철순58 △홍승국46
△황의박63
◆미대 △강대운55 △권은솔03
△김호관74 △김영자63 △김충경54
△박민희85 △박소영97 △배경희02
△서주희89 △손복희67 △송희원93
△안종문60 △양혜진99 △이동원90
△이지호07 △전지윤86 △정상원58
△정선화56 △정인경85 △조대병70
△최은규77 △한연호77 △현숙자56
△홍경희66
◆법대 △강재섭67 △강정욱84
△강형춘54 △구은석98 △구충희48
△금종석56 △김각연84 △김광현54
△김국열92 △김기석59 △김기수58
△김기형50 △김길영51 △김남식57
△김동규03 △김상욱69 △김신규55
△김선병81 △김세돈72 △김영균52
△김영균57 △김영삼61 △김운용81
△김윤규51 △김윤철48 △김재호81
△김정환57 △김진병85 △김진홍57
△김철수90 △김항경64 △김해산57
△남재우59 △박 찬63 △박상화92
△박영석56 △박영수07 △박장우66
△박재현00 △박주환63 △박창훈78
△박천서56 △박태호67 △배찬린58
△백보윤61 △변동걸66 △서주홍73
△석성환54 △송남석55 △송재현60
△신 신55 △신갑철56 △심훈중56
△안남규50 △안덕호87 △안창수52
△오진환75 △유덕택54 △유병수55
△유재성59 △윤금중48 △윤일영52
△이 준70 △이기환56 △이대영58
△이명순85 △이상철79 △이성갑55
△이양순55 △이원기81 △이원택61
△이재원77 △이체주53 △이태희58
△이학성77 △이한구57 △임상현59
△장순욱84 △장준봉55 △전일호96
△정기돈78 △정동현99 △정병두80
△정우채08 △정인숙81 △정인창83
△정준호85 △정지태58 △정혜경03
△조영국86 △조주순61 △조혜녕61
△지원훈61 △진상훈93 △전경송57
△최광률54 △최영룡78 △최은배85
△최정운83 △최준기57 △하성대49
△한광수65 △한상술58 △한원도55
△함민식59 △허만조64 △허용석83
△현종찬74 △호영진56 △홍기인55
△홍진영00 △황선무58 △황영욱59
△황인구00
◆사대 △강철인66 △고경순61
△고무송65 △고종익74 △구양연60
△구자혁57 △김경은00 △김경자58
△김계연68 △김기곤52 △김다림95
△김병국56 △김병수59 △김상욱47
△김수자68 △김예기54 △김용길54
△김종석55 △김준호50 △김창성78
△김혜우64 △김혜정85 △김하인04
△김환수03 △나병삼64 △남기중54
△당현숙60 △문일성53 △민영엽55
△박성수61 △박영숙41 △박인호53
△박준진57 △성완용63 △성하경56
△박준진57 △성완용63 △성하경56
△손국호72 △손종국55 △신각범54
△심상필50 △안영숙52 △안정훈99

△양홍룡71 △오범호93 △오유정08
△우인섭47 △유민영57 △유자효68
△윤상전56 △이광용61 △이규식58
△이길오73 △이길자63 △이범훈47
△이병무52 △이병선51 △이병준03
△이보식53 △이상경65 △이상재59
△이석주60 △이성목67 △이시정54
△이영주56 △이용현53 △이윤우64
△이윤하63 △이재만52 △이제용60
△이창호71 △이태웅71 △임광수68
△임지연97 △장준호56 △전병희86
△정광훈00 △정규범70 △정근훈49
△정두영60 △정복래54 △정봉섭65
△정은호59 △조남진58 △조민식55
△조의래56 △주윤수66 △지동소55
△차도완55 △천낙경51 △최길순49
△최두영78 △최윤경83 △최익규50
△최정림62 △최정현64 △최희주52
△추연화62 △합희동46 △현재복56
△홍성자62 △황광수56
◆상대 △강상기53 △강원규54
△고을상51 △고학모56 △권기봉54
△권만식65 △권영욱54 △김경렬53
△김규석55 △김동희48 △김만유67
△김승경55 △김영하61 △김용은53
△김웅렬49 △김윤재53 △김재수58
△김종해51 △김주호50 △김한오53
△김형영56 △김홍배63 △나용배53
△민병태52 △민병대58 △민병훈56
△민용식60 △박광규56 △박광철56
△박상호63 △박종환49 △배종섭58
△백기환53 △백지근49 △변병주60
△변형윤45 △손경수56 △손명환61
△손성철50 △송인상35 △송정위60
△송주식46 △신동현56 △신문철52
△양해성68 △염재현65 △오기화57
△오맹선53 △오세환68 △오우현55
△우일균50 △위봉택62 △유재윤68
△유재홍68 △윤정희54 △이건재52
△이규찬55 △이기철55 △이명기59
△이상호57 △이성위61 △이영호46
△이태중50 △이필원60 △임동승56
△장기남61 △장기선66 △전완식60
△전인홍54 △전창기57 △정문화71
△정봉수66 △정재두53 △정해운46
△조근목55 △조문제59 △채경석61
△최성한56 △최익재68 △허재경56
△허재원56
◆생활대 △김경애66 △김남미73
△김옥경76 △김은정08 △김혜경85
△박주희85 △백선자64 △신은철73
△오현숙68 △윤승건05 △이아름05
△정하윤86 △조혜자60 △최규순61
◆수의대 △고성욱57 △구본훈54
△김기석93 △김명석08 △김배원60
△김상돈44 △김용대63 △김종건65
△박기환49 △박만규50 △박유순63
△박용복48 △석호봉63 △신문균56
△양진건85 △원문상60 △유승창63
△윤태걸58 △이생근78 △이학범06
△임준기77 △조광영54 △조병왕61
△최귀철77 △최성호57 △홍순국54
◆약대 △공영석57 △공현표67
△김영광72 △김용정58 △김은영89
△김종윤53 △김현욱57 △김혜자55
△김홍대59 △김희중59 △류한호60
△박경래57 △박지인00 △박창서67
△배종철69 △변은자51 △서남현59
△서성수53 △서정훈06 △심은숙51
△유용근54 △윤승모67 △이동악57
△이만재56 △이병국55 △이삼수80

△이상호66 △이원재53 △이재현77
△이홍래52 △정선오94 △정연섭54
△조미정87 △주춘대54 △최경인07
△최경희54 △최병균52 △최은실83
△최혜정86 △한병훈52 △한은아91
△하진종61 △홍순태67
◆음대 △강미증69 △김경화73
△김나아91 △김영희53 △문영애65
△박정배53 △방영호80 △안성준65
△오진목68 △이신희70 △이영민01
△임경하06 △임정선57 △장창환58
△정혜연02 △최예나07 △최유리07
△합천혜62 △홍순미71
◆의대 △강내열56 △강정후70
△고재균50 △공현식92 △김내준49
△김병엽50 △김원희56 △김종박59
△노준량60 △박은주03 △박지명08
△박춘남72 △박현승77 △변종훈69
△송익훈45 △양두병69 △오경균63
△오세윤59 △왕영종54 △유언호54
△유정주05 △이동욱03 △이원기56
△이은혜74 △이인영51 △이재식81
△이종주57 △전동수44 △정진우45
△조한익61 △주원식76 △주정화52
△주진순43 △채희복85 △최 현74
△최현규52
◆치대 △강규욱76 △강대준62
△강우근64 △강인희77 △강정규58
△강정욱83 △김기홍75 △김병준68
△김정태66 △김철위57 △김택근58
△김평일72 △김화춘59 △박경정69
△박동귀55 △박시우54 △박용락58
△박이자60 △박태수64 △백정화86
△서기환74 △서상주56 △송재경96
△심정민87 △양병호01 △오인식56
△용호택67 △이경모76 △이규승58
△이상선81 △이세영96 △이영애58
△임광수60 △임성균59 △조달문68
△하국봉81 △한건웅61 △홍성룡64
◆대학원 △김우식66 △박명호89
△심재영78 △이수형78 △이화련87
△조석준57 △최홍규82
◆경대원 △고창석71 △권영천66
△이해동67 △장만기66
◆MBA △김형철11 △박철형10
△이희은06 △정희선11
◆국대원 △고영진08 △신동연03
△장영진11 △정사랑03
◆보대원 △김남주66 △김상욱87
△박주홍86 △이경연71 △이양재61
△하태경08 △황금복76
◆행대원 △강남구08 △강성원68
△강인준71 △김주현92 △김하근71
△박성룡10 △박완진77 △신지현08
△심윤수81 △유필우75 △이종련66
△임세환71 △정순영81 △정영섭66
◆한대원 △김경철83 △김민주08
△김인근84 △노재원85
◆AMP △강은채44 △고윤재20
△고정웅40 △김석중63 △김성득34
△김영훈49 △김용범30 △김우전7
△김종길29 △김중성39 △남정휴18
△남한일32 △류철조12 △민상기25
△민영복42 △박민주73 △박원식66
△박종구21 △백석기27 △서준희63
△오연수4 △우상우18 △유영걸26
△윤동균46 △이기선73 △이병달28
△이상갑25 △이성철12 △이영주5
△이종철10 △이진선36 △이현섭22
△임창건59 △장남진48 △전동근11
△정재성7 △조석제62 △조용선36

△조준행76 △진성섭10 △최병면41
△최병철65 △최용목53 △최종원16
◆AIP △김영선2 △김윤필32
△김정영21 △김종인50 △박영욱15
△박종우6 △염성도50 △오 현5
△이문기16 △이창욱50 △이현영8
△임은재45 △장희천20 △조원동49
△조종제14 △차정웅18 △최재영11
◆ACAD △강경보20 △권기선77
△김길원35 △김덕영18 △김동찬18
△김부근31 △김인종54 △김정윤69
△김진준70 △김행복27 △김호연11
△문동명44 △박명서27 △박찬국54
△배상태77 △안승우38 △안희수11
△유병국30 △윤영수77 △이강연27
△이관영2 △이근일40 △이동승77
△이상규74 △이윤희18 △이은홍48
△이종원47 △전종식7 △전해성33
△정하철52 △채명기66 △전세욱9
△홍성철77
◆ABP △김영근15 △변정섭14
△유항기39 △이병운30
◆SGS △민상금1 △신영화29
△옥병덕24 △원창희8 △이창복13
△황정식2
◆APC △곽억연17 △홍기만3
◆HPM △김 철31 △박기봉31
△박삼규23 △오한진31 △윤지영29
△이달희31 △정동윤9 △정용기31
△최병현31 △하진원31 △한상부30
△한상섭12 △한영규17 △홍남희31
◆AMPP △고영수10 △김도섭13
△정성훈10 △한재순7
◆AIC △민홍식23 △박병후10
△정상근1
◆AFB △강근택13 △김수찬13
△김정만13 △박만영11 △손외수13
△유석준13 △이상해13 △이선화13
△조준상10 △홍영표13
◆AMPFRI △윤숙현30
◆ACPM △김창종2 △박병수10
△박진순10 △송주창10 △우철식8
△이경원10 △임병규10 △하용환5
◆GLP △강원형14 △김재권25
△김태형9 △송병원20 △이철균26
△인태관27 △임종호11 △최만중12
◆ALP △고형봉10 △김영배2
△노연길10 △이정재8 △이학범14
△정기환6
◆SPARC △정무신5
◆AFP △권희영13 △김건섭13
△박영표13 △백승정13 △서영욱13
△송인희2 △조운자13 △최용수13
△홍재성5 △황상숙13
◆ASP △고진웅4 △김관영26
△김영학26 △염조일15 △오창한26
△이찬근23
◆IFP △김병구4
◆ABKI △김세제4 △백인기4
△이진근3 △진태화1
◆KFL △김텃골11 △이미애11
△이병호16 △이은자16

2014년 5월	
연 회 비	71,371,002
평생회비	71,970,000
입 회 비	70,000
계	143,411,002
2014년 누계	687,781,102

50여년 발전설비 분야 글로벌 전문기업

SINCE 1961

Bokuk



- 내연발전설비(디젤/가스)
- 가스열병합발전시스템
- 가스터빈발전기
- 태양광발전시스템 등

알제리/ARNAT (16.5 MVA)

보국전기공업(주) www.bokuk.co.kr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 3가 77-9번지 메가벤처타워 4층
 대구사무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동 681-4 청산빌딩 3층
 본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고봉리 225
 A/S센터 080-700-2111

TEL. (02) 2278 - 0880(대)
 TEL. (053) 571 - 2111(대)
 TEL. (053) 615 - 2111(대)

FAX. (02) 2273 - 8210
 FAX. (053) 571 - 2117
 FAX. (053) 614 - 3552



루 이 까 스 텔 C P 티 셔 츠



(주)VL&CO · (02) 548-6801/6835 www.louiscastel.com


LOUIS CASTEL
PARIS